Weekly 공감

NO.218
Korea.kr/gonggam
2013.07.22

정전60 주년-기획특집

#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

중점기획 "우리 역사 모르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14년 민원 '서울 방화대로 완전 개통' 서로 '양보'로 풀었다

# 정전 60년… 나는 반성합니다

**이호령**
경기도 가평고등학교 3학년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지역은 6·25전쟁 중에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도움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현재 가평 곳곳에 있는 참전비나 관내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캐나다·호주 참전용사 장학금 등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내가 다니는 가평고등학교는 전쟁 당시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천막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을 보고 감명받은 미 40사단 군인 1만5천여 명이 각자 2달러씩을 모은 돈으로 가평주민들이 함께 세운 학교다. 처음 학교 이름은 미 40사단의 첫 전사자인 '케네스 카이저 하사'를 기념해 '가이사 중학원'이라 했다. 당시 사단장인 조셉 클리랜드 장군의 의견으로 부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클리랜드 기숙사'나 '가이사 역사관' 등 참전 군인들의 이름을 붙여 그들의 도움과 희생의 뜻을 기리고자 했다.

이렇게 유난히 6·25전쟁의 역사와 관련 깊은 지역에서 자란 학생으로서, 그리고 나름대로 역사탐구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으로서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한다.

사실 전쟁 관련 지역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전쟁을 직접 겪어본 것은 아니어서 전쟁에 대한 느낌, 심지어는 '정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까지 하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멈추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전체제의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평화롭게 살아온 나로서는 앞으로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컸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지역은 6·25전쟁 중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지금도 휴전 상태라지만 평화롭게 살아온 나로서는 앞으로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크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의 현실이 안타깝다. 아픔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1953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많은 생명이 쓰러져갔던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의 태도를 먼저 반성해본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 상황도 생각해본다.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의 평화와 교류를 증대하자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정전 100주년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 그때 또 나처럼 이런 글을 쓸지도 모를 학생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60년을 맞이하는 내 생각도 이렇게 무디어져 가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잊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민족의 아픔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화해하여 역사와 전통을 함께 이어나가는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G

2013.07.22
Korea.kr/gonggam | No.218 통권 319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06

16

32

34

46

기획특집

# 참전용사들의 헌신, 행복한 대한민국



## 다시 DMZ를 생각한다



25

## 중점기획 | 역사교육 이대로 좋은가



**표지 이야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소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류형석씨와 대학생 김동현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56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전 60주년을 의미있게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사진·전민규 기자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07.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5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댓글에 답글

### 217호 '지역문화공동체'가 여는 문화융성시대를 읽고

**인천 남구 우각로 문화마을 오은숙씨**

우각로 문화마을은 생활문화공동체 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받은 돈은 당초 사업계획 때 정한 항목 이외에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업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기존 계획과 다른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답글** 생활문화공동체 기금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해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김현정 주무관)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김우씨**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공간 문제입니다. 비싼 월세와 불안정한 재계약이 늘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땅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영구 임대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글** 지역문화공동체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김현정 주무관)

**대전 유성구 모퉁이도서관 김보희 관장**

책이 많아야 아이들이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늘 걱정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으면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꾸준히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답글**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김현정 주무관)

### '댓글에 답글' 코너 신설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코리아**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 마을과 국가가 소통하는 길 …

누군가 '마을'은 근대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대를 넘어 초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사라지던 마을공동체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문화공동체 활동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을 문화상품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선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지역문화공동체 일원인 주부는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가의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역문화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공표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또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글 · 박미숙 기자

## 알림

### 포털 '복지로' 가족 캐릭터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족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꿈꾸는 '복지로'의 가족 캐릭터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응모주제** 복지로의 역할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가족 캐릭터
▶국민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희망 메신저
▶행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
▶개개인의 어울림과 개성이 돋보이는 가족
**응모분야** 캐릭터 디자인
**응모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여
**응모기간** 8월 9일까지
**응모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bokjiro@khwis.or.kr)로 접수
**시상내역** ▶대상(1명) : 200만원
▶우수상(2명) : 50만원
▶장려상(4명) : 10만원
**문의** ☎ 02-541-4777

###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을 절약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나라살림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주제** 예산을 절약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응모분야** ▶보건복지 · 일자리 · 교육 등 9개 주요 정책 분야
▶영 · 유아, 학생, 노인 등 8개 수혜 계층 대상
**응모기간** 8월 10일까지
**응모방법** 온라인 접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내 '정책포커스'(중앙 하단)의 아이디어 공모방 배너 클릭
▶공모방 홈페이지 바로 접속 (www.mosf.go.kr/pr/contest/2013/narasalim_idea.html)
**입상자 발표** 9월 10일, 공모방 홈페이지에 발표
**시상내역** ▶휴대용 포토프린터 10명
▶온누리상품권(5만원) 20명
▶쌀(4kg) 30명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 044-215-7191

# 낱말맞히기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18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5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가로 풀이

1 경험이 많아 노련한 병사. "○○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2 양방이 합의해 전투를 중단하는 일. "올 7월 27일은 6 · 25전쟁의 ○○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4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그 기록. '올바른 ○○ 교육'
5 이제부터 뒤. 이 다음. "밤 10시 ○○에는 외출 금지다."
6 배를 탐.
8 DMZ

### 세로 풀이

1 노동자와 사용자. '○○ 화합'
3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죠. '○○○ 전투기'
4 지고 있다가 형세가 뒤바뀌어 이김.
5 도움이 되게 함. 물건들을 갖추어 바라지함.
7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은?
9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등을 물을 때 또는 예상 밖의 못마땅한 일을 강조할 때 또는 반의적인 뜻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지금 ○○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클리 공감〉 216호(7월 8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2** 일기장 **3** 수요자 **4** 정부 **6** 신시 **8** 공개 **9** 안심
세로 **1** 대장정 **2** 일자리 **3** 수호신 **5** 부침개 **7** 시안 **8** 공유

**〈위클리 공감〉 216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민수**(강원 춘천시 후석로) **김희일**(경북 상주시 동수로)
**윤여근**(충남 부여군 양화면) **이경신**(전남 진도군 진도읍)
**주경찬**(경기 부천시 원미구)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 “수해 방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

## 박근혜 대통령,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화곡동 골목 돌며 빈틈없는 대책 주문

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습 침수지역을 방문, 폭우가 내릴 때 설치하는 방수판을 주민과 함께 설치해보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우려가 깊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7월 15일 오후 찾았다.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침수 방지대책을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골목 곳곳을 돌며 자동펌프 작동을 참관하고 방수판 설치를 직접 시연했다.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방재시설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상이변, 집중호우가 많아서…”라며 “옛날에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사방이 물난리였는데 열심히 예산을 들여 여기 고치고 저기 고쳤다. 그런 다음에는 비가 와도 그런 일이 없더라”며 철저한 수해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곳에 사는 80대 김 할머니의 반지하 주택을 방문, 철저한 침수피해 대책을 약속하며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김 할머니에게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놀라셨나. 비가 확 그쳐야 하는데 아직도 또 온다고 해서 걱정”이라며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나. 빨리 나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또 “2016년에 빗물펌프장이 완공되면 걱정이 별로 없어지겠지만, 그전까지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란다.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위험 징후 파악해 미리 안전 조치를”

앞서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잇따라 화상통화를 했다.

박 대통령은 통화에서 “피해를 본 분들을 잘 챙겨주기 바라고,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 대책을 잘 세워 큰 사고가 없도록 계속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지사에게는 “인명피해까지 나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본부 관계자들에게 “재난은 선제적 대응으로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취약지역을 철저히 안전점검해서 사전에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파악해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환경부·산림청은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구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풍수해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 대책 및 지자체 대처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목적댐과 보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물·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태풍 내습 시 항만운영 및 해운물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풍수해 대비책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평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생활화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G

글·박상주 기자

동대문 쪽방 상담센터 옛 창신1치안센터로 이전

# 쪽방촌 주민과의 약속 지켰다

동대문쪽방상담센터

옛 창신1치안센터 자리로 옮겨 문을 연 동대문쪽방상담센터.

쪽방촌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졌다. 동대문 쪽방촌의 상담센터가 7월 12일 옛 창신1치안센터 자리로 옮겨 문을 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 쪽방촌을 찾아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상담센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약속이 이행돼 쪽방촌 주민들이 센터 이전을 반기고 있다.

이날 이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센터는 3층 건물에 168평방미터 규모다. 종로구 창신시장 내 건물 5층에 위치했던 기존의 상담센터는 시설이 낡고 협소해 쪽방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했다. 또 건물이 오래돼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새로 센터를 열 건물을 물색한 뒤 국유재산인 창신1치안센터를 종로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치안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깨끗한 쪽방 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여러 관계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쪽방상담센터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후원사업과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은 개소식에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쌀 140포대, 소화기 100개, 손전등 200개 등을 쪽방촌에 지원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자립여건 개선을 위한 ‘전국 쪽방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해 쪽방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 현재 4명인 전국 10개 쪽방상담소의 운영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쪽방촌 거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쪽방촌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쪽방촌 환경개선 등 지원 대상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쪽방촌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이동식 세차, 재활용품 활용 상품 제작, 간병인 지원 등 쪽방촌 실정에 맞는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 / 지역활성화과 ☎ 02-2100-3708/2815

# 관광산업, 한국 경제 신성장동력 된다

## 박근혜 대통령, 관광진흥확대회의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강조

중앙포토

정부의 이번 관광산업 육성방안에는 비자제도 완화 정책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들이 다수 마련됐다. 사진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정부가 '관광'을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든다. 7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결과 나온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 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 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는 2012년 85만 개에서 2017년 10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기준 관광 수입은 140억 달러, 외래 관광객은 1,114만명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라는 양적 성장에 우리 문화와 역사, 자연과 스토리를 관광자원으로 잘 조화시킨다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세계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제도 개선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베이징, 상하이 거주자 2천7백만명에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국 내 112개 명문대 재학생까지 더해 총 3천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입국 때마다 복수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복수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 재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엔화 약세와 한·일 갈등으로 인해

**외래관광객 불편해소 방안**

| 출입국 | 안내·여행사 | 숙박 | 쇼핑 | 관광지 |
|---|---|---|---|---|
| •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br>• 동남아 복수비자 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확대<br>• 한국방문 우대카드 도입 | • 관광경찰 제도 도입<br>• 우수여행상품 인증 확대<br>• 여행정보처리센터 상시 운영<br>•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br>• 중국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도입<br>• 호텔업 등급제 완화 및 평가제도 개선<br>• 게스트하우스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 | • 사후면세 환급창구 확대<br>• 우수쇼핑인증제도 확대<br>•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 • 한국만의 특색 있는 음식, 한류,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개발<br>• 자연친화적 생태관광<br>• 캠핑관광 활성화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대책의 일환이다. 부가세 환급은 단체 관광객이 아닌 호텔에 직접 숙박비를 내는 개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을 찾는 개별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의 부가세 10퍼센트를 사후 환급해줄 경우 세수는 연간 5백억원 정도 감소하나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추산이다.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관광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다.

### 13개 부처·지자체 협업으로 현장의 소리 적극 반영

아울러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지방경찰청 내에 관광경찰대 조직을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서울 명동과 인사동, 이태원 등지에 배치키로 했다.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 100여 명 수준의 관광경찰 인력을 확보해 서울 중심으로 배치하고 이어 부산 해운대와 광복동, 인천 차이나타운, 송도 등지에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호텔업 등급제 개선 ▶크루즈 전용부두 12선 석으로 확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관광·레저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근거 및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의료관광 클러스트 조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특히 사전 작업으로 부처 간 협업을 한 점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총 13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4월부터 20회 이상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교육문화수석실 산하의 관광진흥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칸막이 없는 협업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만2천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 소비자와 방한 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 여행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G

글·박미숙 기자

#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 6배 늘었다

## 8년새 416개로 급증… 1조원 돌파 벤처기업도 4개 더 생겨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8년 새 6배 넘게 성장했다. 중소기업청이 7월 16일 발표한 '2013년 벤처 천억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416개로 첫 조사(2004년 기준, 68개) 때보다 6.1배 늘었다. 지난해(381개)보다는 35개(9.2퍼센트) 많아졌다. 내비게이션 부품 제조업체 디젠, 자동차 부품업체 평화기공과 같이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대에 올라선 벤처기업도 54개나 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다.

벤처기업인에게 매출 1천억원은 '마(魔)의 장벽'으로 불린다. 벤처가 중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넘어야 할 과정이지만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 천억기업 조사는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1회 이상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6만3,314개)을 대상으로 그해 결산 재무 정보를 활용해 분석한다.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제조·자동차가 125개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섬유·(비)금속 91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88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235개(56.5퍼센트)였으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66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65개 순이었다.

창업 후 매출 1천억원 돌파에 걸린 기간은 평균 17.0년으로 전년(16.1년)보다 약 1년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통신·방송기기가 11.2년으로 가장 짧았고, 에너지·의료(기)·정밀 업종과 음식료·섬유·(비)금속 업종은 20.0년으로 1천억원 돌파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엔피디·대우디스플레이·육일씨엔에스·유비스·에이테크오토모티브·원익머트리얼즈 등 6곳은 설립한 지 7년 이내에 매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적극적인 R&D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성장 비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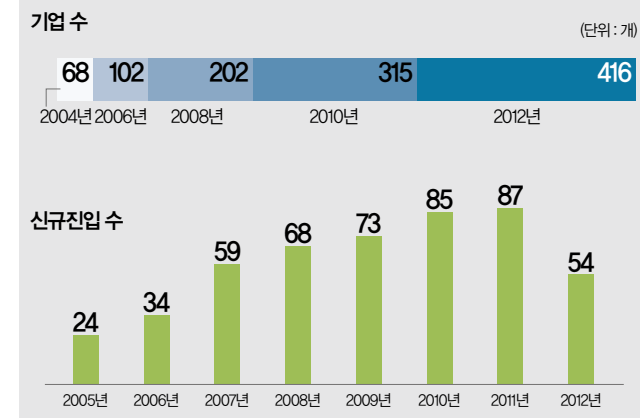
### R&D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성공 비결

특히 휴대폰 부품(SMT) 도·소매 회사인 엔피디는 2010년 설립 후 3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2007년 문을 연 육일씨엔에스는 자체 R&D를 통해 UV 라미네이션 방식의 휴대전화 윈도용 강화유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매출이 급성장했다. 대기업인 LG에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한 것도 성장 비결로 꼽힌다.

3년 연속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고성장 벤처는 39개로 조사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그린테크놀로지, 반도체소자를 제조하는 우리이앤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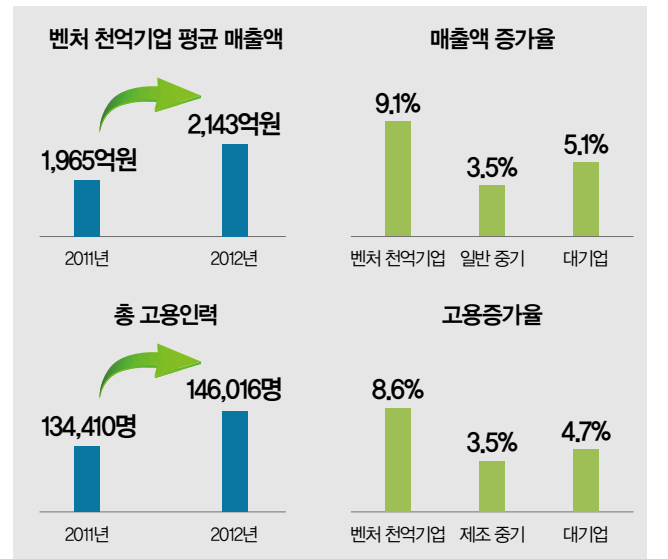
고성장 벤처의 평균 매출액은 3,087억원으로 일반 벤처 천억기업(2,045억원)보다 많고, 영업이익은 4.1배 높았다. 고성장 벤처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9퍼센트(평균 97억원)로 일반 벤처 천억기업(2.4퍼센트, 평균 49억원)보다 높았다. R&D 투자가 고속 성장의 기반임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7월 1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벤처 천억기업 기념식에서 5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돌파한 NHN 김상헌 대표에게 시상하고 있다.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넥슨코리아 | 3,295억 | 5,146억 | 8,770억 | 1조1,069억 |
| 한국니토옵티칼 | 7,504억 | 8,598억 | 9,371억 | 1조724억 |
| 성우하이텍 | 4,218억 | 7,700억 | 9,317억 | 1조105억 |
| 유라코퍼레이션 | 5,836억 | 8,289억 | 9,664억 | 1조95억 |

자료 : 중소기업청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대형 벤처기업도 4곳 더 탄생했다. NHN은 매출 1조5100억원으로 5년 연속 1조원대를 유지했고, 넥슨코리아(1조1,069억원), 한국니토옵티칼(1조724억원), 성우하이텍(1조105억원), 유라코퍼레이션(1조95억원)은 '매출 1조원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휴맥스(8,800억원), 서울반도체(8,600억원), 모뉴엘(8,300억원) 등도 1조원 진입을 앞두고 있다.

벤처 천억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9.1퍼센트로 대기업(5.1퍼센트)이나 중소기업(3.5퍼센트)보다 높았고, 영업이익률 역시 6.5퍼센트로 대기업(4.8퍼센트)을 넘어서는 등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89조2천억원으로 매출액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6.29퍼센트)보다 늘어난 7.01퍼센트였다. 또 벤처 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4만6,016명으로 전년(13만4,410명)보다 약 1만명가량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고용인력도 전년 대비 28명(8.6퍼센트) 늘어난 351명을 기록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7월 1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벤처 천억기업 기념식'에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 천억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해 경쟁우위를 점했다"며 "더 많은 벤처기업이 매출 1천억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

글·장원석 기자

# 모바일 기기로 실태조사·단속업무 본다

## 안전행정부, 전국 지자체 대상 스마트폰 이용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산림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최아무개씨는 현장조사를 나갈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현장 위치를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하고, 현장조사 과정에 필요한 행정대장·지도 등 많은 문서를 들고 다니며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무실에 복귀해 결과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현장조사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사용하게 됐다. 최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행정대장조회와 산지전용 이력확인, 민원확인, 위치정보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도 사무실에 복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됐다.

이 사례는 스마트폰 현장행정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그려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앞으로 실태조사나 단속 등 공무원들의 현장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불필요한 서류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장행정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7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전국의 공무원들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안행부는 대기배출업소, 의료기 판매업 관리, 노래연습장 신고 등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한 전국 시·군·구 45개 업무 기능에 대해 12종의 앱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위생, 내부행정, 문화체육, 지역산업, 농촌, 지역개발, 보건, 산림, 수산, 축산 등 항목이다. 이 앱은 기존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던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돼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현장업무가 필요한 12개 앱을 따로 만든 것이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앱이라고 보면 된다.

2011년 8월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한 자치단체의 현장행정업무를 파악한 안행부는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정부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해 추진해왔다. 안행부는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박미숙 기자

###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

| 항목 | 개선 전 | 개선 후 |
|---|---|---|
| 사전준비 | ① 실태조사에 필요한 실태조사 이력, 행정대장 정보, 위치 정보, 행정 처분 이력을 엑셀로 변환<br>② 변환된 엑셀 자료를 출력<br>③ 현장점검 후 출력 자료를 이용해 실태 조사 | • 필요한 자료 준비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 |
| 현장점검 | •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네이버 지도 등 포털에서 위치를 찾은 후 지도를 출력해 현장점검 | • 사업장 처분내역 및 전자 지도를 통해 위치를 바로 확인 |
| | • 사진을 촬영해서 따로 보관해야 함 | • 관련 법령 조회와 현장사진을 앱으로 사진 촬영 및 등록 |
| 결과처리 | • 현장점검 후 사무실 복귀,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사 내역을 별도 입력 | • 현장에서 직접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 등록 가능 |







청와대사랑채 '행복누리관' 개관

#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보여드립니다"

청와대사랑채 2층에 새로 개관한 행복누리관을 찾은 한 어린이집 꼬마손님들이 QR라운지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청와대사랑채 2층에 '행복'을 주제로 한 체험 위주 전시공간인 '행복누리관'이 7월 17일 개관했다. 대한민국이 펼쳐나갈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비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행복누리관은 인터랙티브 체험공간으로 '문화의 바다' '스마트 테이블' '희망메시지' 'QR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의 바다' 코너에 들어서면 수많은 문화물고기(culture fish)가 관람객을 따라 모여들고, 일정한 수가 모이면 '문화융성과 행복,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펼쳐진다. '스마트 테이블'은 터치식 미디어로 관람객이 직접 창조경제의 개념과 대표 사례, 세계로 진출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콘텐츠는 한·영·중·일 등 4개 국어로 읽을 수 있다.

'희망메시지' 코너는 관람객이 행복과 희망, 미래의 꿈을 담은 다양한 메시지 중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손바닥에 담아보고 사진 등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했다.

'QR라운지'에는 라이트박스에 설치된 QR코드가 진열돼 있다. 관람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반원형의 대형 벽면에서는 국민의 희망과 꿈, 행복을 주제로 한 영상물이 상영되는 '행복시네마'를 볼 수 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3미터·1.8미터)에는 K팝,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행복미디어'가 마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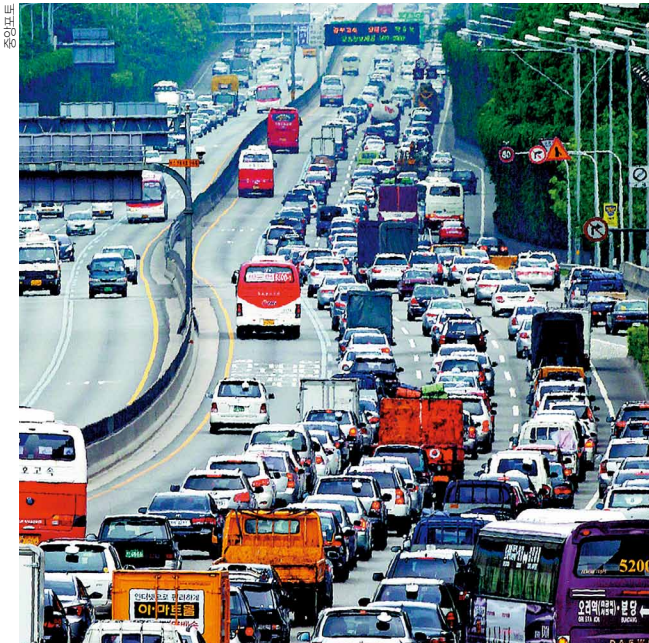
한편, 청와대사랑채에는 지난 어린이날 개관한 '청와대관'이 있다. 청와대관에는 박근혜정부의 희망이 민들레홀씨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LED 등을 활용해 상징화한 '현직 대통령 미디어월'이 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받은 선물로 구성한 '대통령의 애장품' 전시코너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통령과 사진 촬영' 코너도 있어 관람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글·박상주 기자

매주 월요일 제외 연중무휴 / 관람료 없음

☎ (02)723-0300 www.cwdsarangchae.kr

# 휴가객 절반 7월 27일~8월 2일 몰린다

## 7월 25일~8월 11일 하계 특별교통대책 시행… 철도·고속버스 등 교통편 대폭 늘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편을 늘리고 교통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 구분 | 2013년 평시 | 기간중 증강 | 합계 | 비율(%) |
|---|---|---|---|---|
| 기차(량수) | 5,266 | 114 | 5,380 | 102.2 |
| 고속버스(횟수) | 5,691 | 258 | 5,949 | 104.5 |
| 항공기(편수) | 438 | 27 | 465 | 106.1 |
| 여객선(편수) | 823 | 177 | 1,000 | 121 |

###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 찾는 방법

**스마트폰 앱** 한국도로공사 제작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로드플러스'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 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 www.roadplus.co.kr
**전화** 종합교통정보안내 ☎ 1333 / 콜센터 ☎ 1588-2504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7월 27일~8월 2일에 전체 휴가객의 47퍼센트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2일(출발)~8월 3일(귀경)에 휴가지를 오고 가는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여름철 집중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철도 114량, 고속버스 258회, 항공기 27편, 선박 177편을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편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동해선 하조대~양양 2개 구간을 지난해 개통했고 중부내륙선 남여주 등 5개소에 나들목도 추가 설치했다.

고속도로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는 등 도로의 준공과 조기 개통,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과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및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 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상 혼잡 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 정보를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사전에 미리 결정해 편리한 여행을 하도록 당부했다.

교통안전대책도 마련됐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고속도로 119구급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견인차량을 배치하는 등 교통사고 시에 인명구조와 사고처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했다.

또 피서객 편의를 위해 8월 2~8일까지 7일간 자동차 제작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일반국도, 피서지 등 총 17개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남자 화장실 105칸을 여자 화장실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G

글·박미소 기자







# "모바일 EBS 수능강의 좋아졌어요"

## 동영상 배속 재생·'질문 답변' 기능 강화된 업그레이드 앱 배포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EBS 수능강의'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의 강의실'에선 현재 수강 중인 강좌 목록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한 강좌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된 강좌를 볼 수 있다.

내가 올린 질문에 답변이 달리거나 이벤트 등에 당첨될 경우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능을 앞둔 고3 이성재군은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부를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모바일 앱으로 EBS 강의를 듣고 있는 이군은 "예전엔 등하굣길에 오답노트를 보며 부족한 과목을 보완했는데 요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주 틀리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시청한다"며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노트, 책을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좋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EBS는 7월 8일부터 기존 EBSi 모바일 앱(m.ebsi.co.kr)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수능강의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BS 수능강의'를 배포했다. 'EBS 수능강의' 앱은 강의 배속 재생·강의 다운로드 기능 등이 추가돼 기존의 동영상 수강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배속 재생 기능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0.8배에서 최고 2배까지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미리 강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언제든 편리하게 시청할 수도 있다. 다운로드를 실행한 강의는 '다운로드함'에 자동으로 저장돼 스마트폰의 데이터 다운로드 용량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요 부문에 대한 저장·재생이 가능한 '북마크 기능', 필요한 구간을 선택해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구간반복 기능', 강의를 시청하다 멈췄더라도 이어서 볼 수 있는 '이어보기 기능' 등 다채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평소 오답노트를 만들어 취약 부문을 점검하는 이군은 "구간반복 기능과 북마크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로 오답노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Q/A 게시판'의 기능도 개선됐다. 동영상, 녹음 파일,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게 돼 질문자가 모르는 문제를 바로 사진으로 찍어 게시판에 올리는 게 가능해졌다. 교사가 질문에 답변을 달면 실시간 알림(Push) 서비스가 제공돼 질문자는 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학습 진도를 관리하는 기능이 기존 PC를 기반으로 한 진도관리 기능과 통합·연계돼 통합적으로 학습 진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패드를 포함한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BSi에 이미 가입한 이용자는 EBSi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ID)와 암호(PW)를 사용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G

글·김혜민 기자

# “세계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 인식 역사적 사고능력 없인 미래 없다”

## 역사지식 습득은 수학에서 공식 익히기와 같아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독도 체험관을 찾은 학생들이 독도 모형을 보고 있다.

지난 3월 하순, 한 방송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안 의사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 명동 거리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누구인지를 물었다. 42명 가운데 겨우 두 사람이 바르게 대답했다. 석달 뒤 6·25전쟁 63주기를 앞두고 시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고교생 69퍼센트가 ‘북침’이라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한자 지식이 부족해 북침을 ‘북한의 침략’으로 잘못 알고 답한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 나와 조금 안심했지만 한자 교육의 부실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지식 부실은 20여 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과목 간의 치열한 교육 시수(時數) 다툼으로 국사 필수제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1990년대 초반 ‘세계화’와 ‘건전한 시민 교육’ 지향이라는 구실 아래 국사가 사회 ‘교과’의 한 ‘교과목’으로 편입돼 버렸다.

박정희 대통령 때 민족사 교육을 강조해 국사를 하나의 교과로 독립, 각급 교육과정과 시험에서 필수로 지정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사회 교과 중의 한 교과목으로 전락한 국사는 대입 수능 시험에서도 사회 교과 시험에 분산 출제되다가 나중에는 선택과목의 하나가 돼 대학들이 ‘선택 필수’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한국사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제도 변화가 안중근도 모르고 남침, 북침도 헷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역사 지식 습득은 수학에서 공식 익히기와 같은 것이다. 수학에서 공식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역사 지식 없이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나 역사적 사고는 기대할 수 없다. 역사적 사고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끌어 갈 미래의 대한민국,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세계화를 부르짖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세계화는 곧 ‘우리 것 버리기’가 돼 젊은이들이 민족의 영웅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위험 지경을 초래했다. 세계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니 미래는 언제나 ‘세계화’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정체성부터 확실히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의 잘못된 정책이 남긴 교훈이다.

### 한국사 능력시험, 공무원 시험·승진에 더 활용해야

한국사 홀대 속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자구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제도는 최근 공무원과 중등교원 채용의 자격시험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10여 기업체에서도 입사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시험을 이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을 해외 근무시켜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직원일수록 그 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공부도 빨리 익혀 훨씬 좋은 업무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知彼知己) 싸움에서 이긴다고 한 말은 군이 병법에만 한정시킬 격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환경을 주시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웃인 중국,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 강대국이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실익을 취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나라와는 이웃으로 협력 관계가 서로 필요한데도 실제로는 역사분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당나라의 지방 역사로 기정사실화해 버리려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끌어갈 젊은이들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서도 관련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필패(必敗)하고 말 것 아닌가.

역사 교육은 나라를 끌어갈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어 빛나는 리더십 사례가 얼마든지 발굴될 수 있다. ‘조선후기의 세종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조대왕에게는 감동적인 얘기가 많다. 정조는 민족을 외침에서 구한 인물들의 전기를 편찬하도록 규장각에 명했다.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전서’도 이때 처음 편찬됐다.

정조는 문집 편찬에 만족하지 않고 비문을 손수 지어 아산 현충사에 보내 장군에 대한 존경의 뜻을 더했다. 이때 한 신하가, 지금까지 군주가 신하를 위해 비문을 지은 예가 없다고 하면서 말렸다. 왕은 충무공 같은 신하는 백 명이라도 모두 비문을 지어 내리겠다고 답했다. 일세를 태평성대로 이끈 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동 스토리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못지않은 리더십 사례를 우리 역사 속에서 이처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역사교육 강화 방안으로 고등학교 역사과목에 졸업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할지, 역사를 수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할지는 교육부가 중론을 모아 결정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현재 대학의 한국사 강의도 대학생들이 멀리해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가르칠 교수직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고 한다. 대학에서 한국사 강의를 두 과목 이상 이수하면 국가 공무원과 중등교원의 채용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검토해볼 만하다.

글·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 "암기에 앞서 내 삶과 관련성을 생각하라"

## 서울 중앙고, 역사 편지쓰기·UCC 제작 통해 참여·체험형 역사교육 강조

서울 중앙고등학교는 차별화된 수행평가 개발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역사교육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역사수업을 살펴봤다.

중앙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신족고의 역사 교사가 7월 17일 중앙고를 찾아 일제강점기 대만의 저항운동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천하는 저항시인 이상화 교우님께. 교우님! 교우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리워하셨던 봄을 기억하실는지요? 불멸의 저항의지와 광복의 믿음에 대해 저희들은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중략) 교우님의 삶을 돌아보고 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조그마한 고난에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저희들. 글로는,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중앙고등학교가 매년 실시하는 '역사 편지쓰기'에서 씌어진 편지 본문 중 일부이다. 올해 6월 21일 중앙고의 성용훈, 김찬, 김진구군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시로 유명한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에게 편지를 썼다. 역사 편지쓰기는 역사 속 주제와 관련된 중앙고 출신의 교우에게 편지를 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역사교육도 돕고 건학이념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역사교육에 있어 중앙고만의 차별점은 '참여'와 '체험'이다. 기존 한국사 수업은 진행하되 수행평가를 활용해 학생들을 능동적 배움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역사 편지쓰기와 더불어 실시하는 UCC 경연대회는 역사 주제를 정해 학생들이 직접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캐릭터 그리기 대회를 열어 역사 속 독립운동가를 그림으로 표현케 하기도 한다. 1926년의 '6·10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선 대강당에 모여 만세 삼창을 외쳐보기도 했다.

역사교육은 학교 담장 밖을 넘어 역사와 관련된 체험 교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1년 4월에는 4개 반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동참했다. 학생들 각각은 옛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한 후 각자 쓴 항의 편지를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는 교사 인솔로 독도 탐방을 다녀오기도 했다.

### 일본·대만 학교와 역사교육 교류도 가져

중앙고 역사교육을 이끄는 주축은 박범희, 조경훈, 최현삼 교사 3인방이다. 수행평가를 활용해 참여·체험형 역사교육을 개발해 끌어온 이들이다. 세 교사의 역사교육 철학도 비슷하다. 역사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7월 15일 중앙고를 찾아 박 교사와 조 교사를 만났다. 박 교사는 "역사 수업이 그저 듣고 마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역사를 통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나라면 어땠을지를 생각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사도 "6·25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 교사는 "교과서 내용만 그대로 전달받으면 재밌고 시험엔 유용할지 몰라도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성숙이 지체되는 느낌"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솔직한 기분을 전했다. 이에 문제 의식을 느낀 그는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란 과제를 내주는 등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토록 독려한다.

교사들이 내민 과제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 의도에 부응하는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중앙고 출신이자 당시 학교에서

중앙고 학생들이 역사 속 인물 캐릭터 그리기 대회에 출품한 작품들.

4·19혁명을 주도한 남궁진 교우에게 쓴 역사 편지쓰기를 보면, '4·19혁명 당시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부와 게임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우리들은 부끄럽지만 주도는커녕 참여조차 거의 못했을 것입니다'라는 학생들의 철든 생각이 적혀 있다. UCC 경연대회 수상작을 보면, 헌법 속에 나타난 4·19혁명을 되짚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해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

중앙고의 역사 교육은 일본·대만 등의 학교와 교류하면서 지금도 꾸준히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한·일 역사교류 모임을 통해 매년 일본의 역사 교사가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 올해로 12회째다. 조선 후기 시대의 대중실용화(민화)와 에도 시대 문화를 비교하거나 지배층인 양반과 무사를 함께 배우는 식이다.

조 교사는 "양국 교사의 수업을 통해 일본인들은 전부 나쁘다는 인식을 깨고 동반자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수업 내용보다 더 큰 배움"이라고 말했다. 중앙고는 대만의 신족고등학교와도 자매 결연을 맺고 역사수업 교류를 진행 중에 있다. G

글·남형도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 "암기뿐인 공부라 흥미가 안 생겨요"

## 한 학기에 몰아 배우는 집중이수제도 아이들 관심 떨어뜨려

한 여고생이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가채점을 하고 있다. 2013년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5.66퍼센트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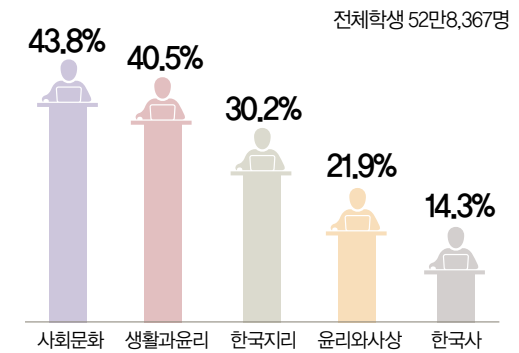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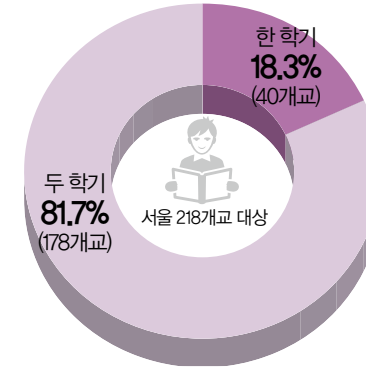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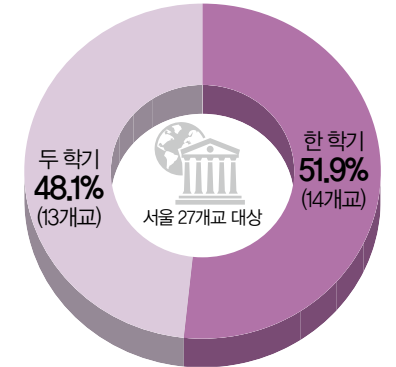
중앙포토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지연(17)양은 몇 주 전 수업 중 한국사 선생님으로부터 "요즘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너무 모른다. 신문에도 온통 그 이야기다"라는 말을 듣고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한양은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의 판서를 베끼고 주요 사건의 연도나 사람 이름을 암기하는 게 공부의 전부다.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거나 내막을 자세히 아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얼마 전 치른 기말고사에서도 역사적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인 김지율(18)군은 원래 전쟁사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시청각 자료로 각종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흥미가 생긴 덕분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온 뒤에는 역사는 재미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느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행평가나 현장학습 등의 기회가 더 적고, 시험범위까지 진도를 나가기 위해 수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 좋아하는 전쟁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중학교 때처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일도 적었다. 김군은 "고등학생이 된 이후 역사공부에 흥미가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슬기(가명·18)군은 현실적인 이유로 역사 공부를 멀리하게 된 경우다. 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을 2개 고르게 되는데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밖에 없다.

이군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한국사를 선택한다. 한국사는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확 떨어진다. 어차피 수능시험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다른 과목에 비해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공부할 과목은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대입 비중이 큰 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영(가명·17)양은 최근 치른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국사 문제의 절반밖에 풀지 못했다. 학교 한국사 수업에서 앞부분을 건너뛰고 조선 말 개화기부터 배운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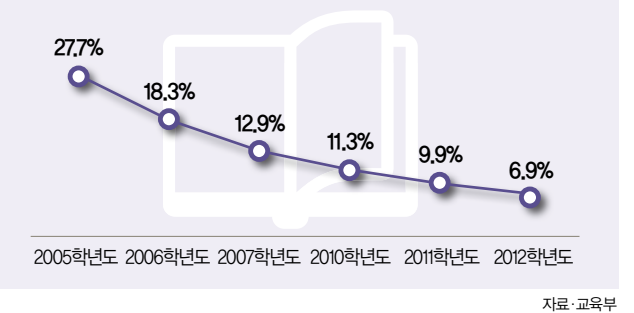
### 교사들도 형평성 논란 탓에 선별 교육에 어려움 느껴

김양은 "선생님이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고 진도 나가는 게 급하니 앞부분은 건너뛰자'고 하셨는데 앞부분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풀지 못했다. 다른 학교 친구는 집중이수제라 1학년 때는 한국사 수업이 없고 2학년 때 일주일에 4번 수업하는데, 모의고사 문제 대부분을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역사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박현주(가명) 교사는 "사실 한국사는 공부할 내용도, 암기할 내용도 많은 과목이다.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자세히 가르치면 좋겠지만 자칫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학생들이 요점 위주로 학습하고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이성호 회장은 "사실 한국사는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과목이라 좀 더 재미있게 배우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도록 연극을 하거나 재판을 재연하는 식으로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청소년 역사캠프를 운영하거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역사 관련 청소년 대중서적을 펴내는 등 역사 교사들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G

글·박미소 기자

자료 : 교육부

#### 한국사 이수단위 5단위서 6단위로 확대
### 집중이수제 불가능… 두 학기 걸쳐 내실 있게 가르친다

학생들의 역사 인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교육부가 내놨다. 교육부는 7월 7일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6단위로 늘려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단위로 이수단위가 늘어나면 한 학기에 3단위 이상 수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사 수업을 2개 학기에 걸쳐 운영해야만 한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해 전체 6학기 중 한 학기에 한국사를 몰아서 가르치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교과수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실시됐는데 한국사의 방대한 내용을 한 학기에 가르치다 보니 수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사 이수단위가 늘어나면 집중이수제를 적용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9월이 되는 올해 2학기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부터 반영된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이 한국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자료가 개발되는 대로 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영토와 역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돼야… 독일은 수업의 20퍼센트가 역사 교육

중앙포토

지난 5월 한 방송사에서 청소년의 역사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 큰 논란이 됐다. '3·1절'에 대해 묻자 '삼점일절?'이라고 답한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질문에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라고 되묻는 청소년도 있었다. 정말 황당한 대답이다.

4년 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대학생 연합동아리 '생존경쟁'팀과 국내외 약 3만명의 손도장으로 만든 '안중근 의사 대형 손도장 걸개그림(가로 30미터·세로 50미터)'을 제작해 광화문 일대에 내걸었다. 당시 한 대학생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람이라며 옆 친구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주변국의 역사 왜곡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의 가장 큰 적(敵)은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아닌 것 같다.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하나같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대답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 땅이냐?'라고 재차 물으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명확하게 대답하질 못한다. 이는 기성세대가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이다.

2005년 이후 입시 당국은 대입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한국사를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그것도 문과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과는 선택할 수조차 없도록 개정했다. 한국사를 입시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뿐이니, 서울대에 갈 게 아니라면 그마저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등학교 전체 수업 비중의 20퍼센트가 역사 교육인 독일과 다른 점이다.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폴란드인 앞에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로도 독일은 지속적인 사죄와 보상을 해오고 있다. 이런 올바른 역사 교육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독일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로 다시금 우뚝 섰다.

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역사수업 비중은 5퍼센트 정도다. 이마저도 2009년부터는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집중이수제다. 고민하고 곱씹어야 할 역사를 몰아서 배운다니, 이게 이 땅의 현실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6월 초부터 한국사 수능시험 필수과목 선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시대로 이행할수록 선진국은 자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 교육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잘못된 역사교육 방법을 바로 잡아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영토와 역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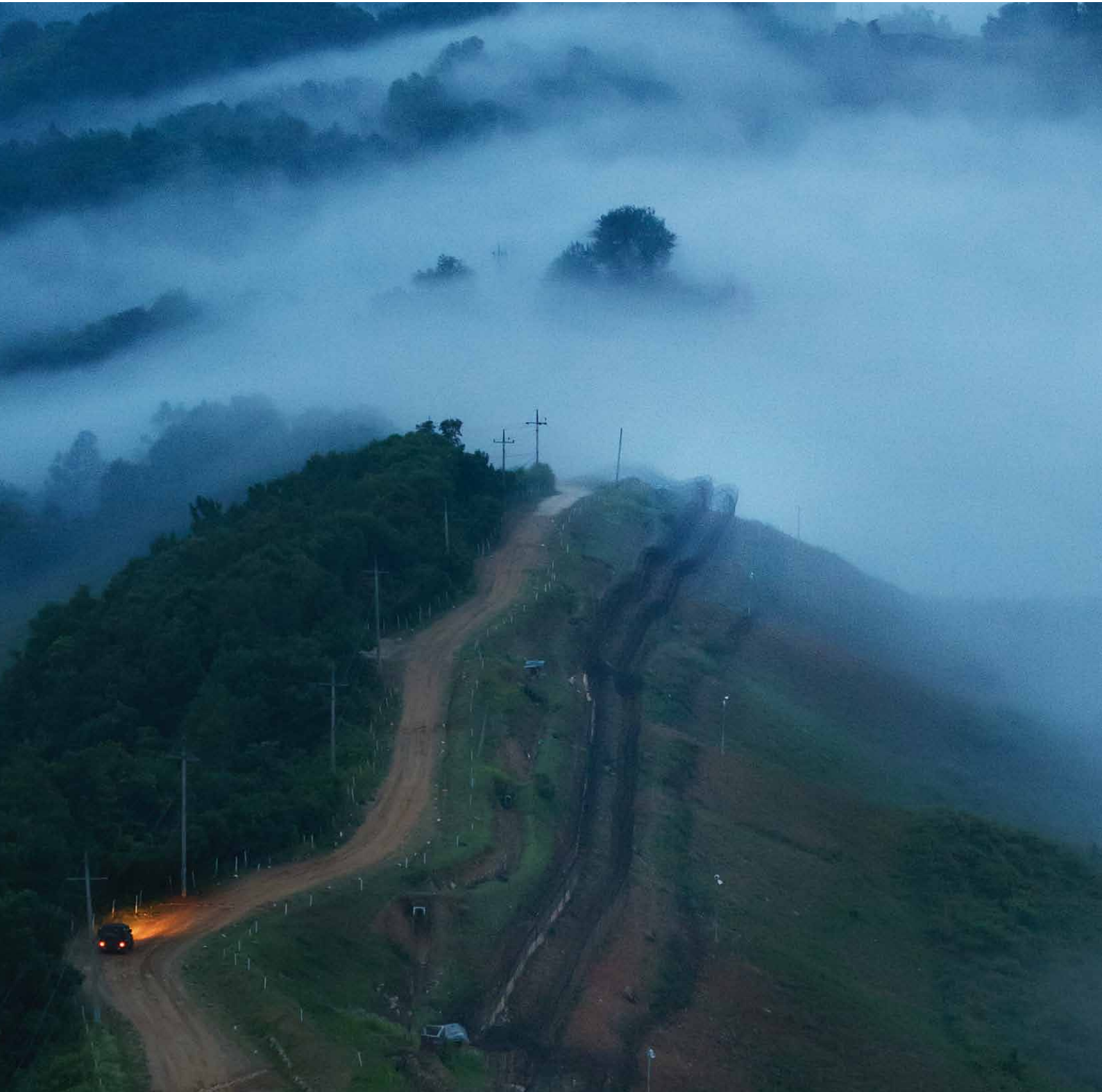
글·서경덕(한국홍보전문가·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합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틈탄 북한의 남침으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아프고도 슬픈 6·25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기나긴 협상 끝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이어져
오는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향했던
우리의 아버지·할아버지뻘 참전용사들, 낯선 나라 한국을 구하러 서슴없이 달려온 유엔군 참전용사들!
여러분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로 보답하겠습니다.

# 분단을 넘어 행복한 통일시대 열어야

##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평화와 신뢰를 자라나게 하는 계기

정전 60주년 여름을 맞이한 경기도 연천군 중서부전선 DMZ.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서명식.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공군 간의 서명이 끝났다. 전쟁은 멈췄다.

정전협정 서명에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오가며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3년 1개월하고도 2일, 총 1,129일을 끌었다.

휴전 협상도 쉽지 않았다.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의 철수, 포로송환 방식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이 열린 뒤 협정 체결까지 2년 17일이 걸렸다.

휴전 협상은 역설적으로 최전방 전투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협상 완료 전 한 치의 땅, 하나의 고지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서 사투가 벌어졌고 사상자는 늘어갔다.

"1951년 6월 중순부터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선에서 방어 태세로 들어가고 있었다. 7월부터는 휴전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52년 4월까지는 소규모 전투 외에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각 전선에서는 전초기지 탈환전으로 불모고지, 백마고지, 피의 능선, 저격능선, 수도고지 등 유명한 전투들이 있어 피아 간에 막심한 피해가 있었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6·25전쟁 내내 최전방 전투에 참여했던 예비역 육군대령 김종민(91)씨는 자신의 저서 〈대전쟁〉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동안의 최전방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정전협정으로 확정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가 탄생했다. 동서로는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약 248킬로미터, 남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까지 각각 2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지난 대선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 행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60년 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DMZ는 이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DMZ세계평화공원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세계평화공원이 DMZ에서 평화와 신뢰를 자라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총 21개국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5개 국가가 의료지원단을 보내왔다. 39개국은 물자를 지원했다. 당시 전 세계 93개국 가운데 63개국(78퍼센트)이 한국을 도운 것이다.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첫번째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유엔과 참전국 등 27개국을 초청해 유엔군참전기념식을 거행한다. 그동안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 감사는 있었지만 참전국에 대한 감사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왕 6·25전쟁 60주년 사업 추진기획단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것도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류형석씨와 김동현군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전시된 F-51D '무스탕' 전투기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2일 주일미군으로부터 10대를 인수하면서 최초로 보유하게 된 전투기다.

1 류형석씨와 김동현군은 무려 56세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전 60주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2 전쟁기념관 2층에 있는 '6·25전쟁실'에 가면 6·25전쟁 당시 국군 포병부대의 105㎜ 곡사포 사격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79세 참전 노병, 23세 대학생을 만나다

# "6·25전쟁 소년병 참전은 인생의 자부심"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가면 6·25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을 볼 수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전쟁을 기억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전 60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을 10여 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에서 소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류형석씨와 대학생 김동현군을 만났다.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은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제2연평해전 당시 전투에 나섰던 참수리호 모형을 둘러보는 해군 장병들부터 전시회 곳곳을 사진기에 담아가는 외국인들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젊은 방문객들 사이로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구의 백발이 성성한 류형석(79)씨였다. '6·25참전유공자'라는 글씨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류씨를 보고 김동현(23)군이 다가가 인사를 했다. 류씨는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다 훤칠하네"라며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163센티미터까지 컸는데 지금은 159센티미터밖에 안 된다"고 웃으면서 첫마디를 건넸다.

류형석씨는 1934년생, 김동현군은 1990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56세나 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을 떠올려볼 때 두 사람 사이엔 강산이 여섯 번 바뀐 세월이 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했다. 두 사람 다 정전 60주년의 의미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류형석씨는 소년병 출신의 6·25 참전용사다.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열여섯 살(중학교 2학년)의 나이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8월 21일 대구 북쪽 다부동에 있는 제1사단 11연대 1대대에 배치됐다. 통신병으로 근무하며 1950년 9월 24일 북진해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북진해 평양을 거쳐 평안북도 태천까지 진군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일등중사(하사)로 전역했다.

김동현군은 현재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김군은 2010년 10월에 주한 미2사단에 어학병(통역병)으로 입대해 2012년 7월에 제대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마친 후 전쟁기념관 2층에 마련된 특별전시실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 잊힐리야'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6·25전쟁 당시 기록,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의 발전상, 참전용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감사편지·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특히 당시 사용하던 전투복, 전쟁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첩 등 현재까지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던 물품들도 볼 수 있다.

### "6·25 참전은 희생 아니라 당연한 국민의 도리"

김군의 손을 꼭 잡고, 전시장을 둘러보던 류형석씨가 한 장의 흑백사진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군인들의 형상만 어렴풋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류형석** "김군, 저게 뭔지 알겠어요?"

**김동현** "글쎄요. 사진만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류** "내가 복무했던 1사단 사진이에요. 흑백사진이라 잘 안 보이지만 방패에 빨간색으로 '1이'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저걸 입고 전쟁터에 있었어요."

**김** "50년도 더 된 일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류** "기억할 수밖에 없죠(웃음). 6·25전쟁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이 옷은 아주 중요한 날에만 입는 소중한 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열여섯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게 자존심입니다."

류형석씨가 입은 조끼 오른편에는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 왼편에는 '6·25참전유공자'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다부동전투는 낙동강방어선 전투 중 국군 제1사단이 대구 북방 다부동에서 미군과 함께 북한군 3개 사단을 격멸한 전투다. 다부동(현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은 대구를 방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였다. 학도병 500여 명이 포함된 국군 제1사단은 열세한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고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김** "제가 열여섯 살 때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갔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열여섯 살 때 공부하기에도 벅찼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으셨어요?"

**류** "그때는 죽는 게 겁이 안 났어요. 죽는다는 생각도 안 했던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김군처럼 '어떻게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할 수 있었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게 희생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져서 국민들이 피난을 가는데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자기 한 몸 편하자고,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건 기생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년병을 모집한다는 걸 듣고 자연스럽게 지원했죠. 그때 마음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전쟁 나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김** "가끔 친구들이랑 '만약 전쟁 나면 어떡하지?'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전쟁 일어나면 도망가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반도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

'아! 잊힐리야' 특별기획전 관람을 마친 두 사람은 전쟁기념관 2층에 있는 '6·25전쟁실'로 자리를 옮겼다. '배경 : 남침' '반격 : 북진' '중공군개입과 전선교착' 'UN참전' 등으로 이뤄진 이 전시실에 가면 6·25전쟁의 배경에서부터 정전협정에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을 볼 수 있다.

참전 노병 **류형석씨**

"그때는 죽는 게 겁이 안 났어요. 희생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한 몸 편하자고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건 기생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시실에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연상시키는 "서울 시민들 안전하게 피하십시오"라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는 중이었다.

**김** "군대를 다녀오긴 했지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좀 더 다른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께선 직접 전쟁터에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류** "한마디로 처참했죠.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사방에서 총탄이 오가고…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죠. 우리 국군들이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인간의 삶의 질을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내 생각엔 80에서 90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100퍼센트 만족한다고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는 10에도 못 미치는 한 4에서 5정도였던 거 같아요. 그런 시절에 겪은 전쟁이니 오죽했겠어요. 요새로 치면 산꼭대기에서 비박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두 달 정도 목욕도 못하고요."

대학생 **김동현군**

"군대에 가기 전에는 정전 60주년을 생각할 때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군 복무 후에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선생님께선 정전 60주년을 맞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류** "아시아에서 아주 못살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도 놀랍고, 여러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정전 60주년이라는 이런 기념적인 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지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요. 동현군, 이번에는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정전 60주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 "일단 '정전'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아요. 한반도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라는 거잖아요.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군대에 가기 전에는 정전 60주년을 생각할 때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군 복무 후에는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북한의 도발 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국방부 정보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부터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2010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도발은 육상 720여 건, 해상 920여 건 등 침투만 1,640여 건에 이른다. 국지도발은 1,020여 건으로 지상도발 470여 건, 해상도발 510여 건, 공중도발 40여 건 등이었다. 북한의 도발로 제2연평해전 당시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46명이 전사했다.

**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사실이에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안보는 또 다른 문제예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많은 청소년들이 6·25를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현대사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교육이 꼭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안보교육은 분명히 필요해요. 안보 불감증은 매우 심각해요. 현충일에 사이렌이 울리잖아요(매년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묵념하기 위한 사이렌이 울린다). 외국에선 이런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고, 경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사이렌이 울려도 멈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해요. 미국 서부를 여행간 적이 있는데 독특한 모습을 봤어요. 대부분의 미국 가정집들엔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몇 집 정원수에는 노랑색 천이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깐 그 집에는 이라크에 파병된 가족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의 대상이래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참전 용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G

글 · 김혜민 기자 / 사진 · 전민규 기자

하이메 까발 알베르또 산클레멘떼 콜롬비아 대사

# "FTA 체결 계기로 양국관계 격상 기대"

커피의 나라로 유명한 콜롬비아. 머나먼 중남미 대륙에 위치한 콜롬비아도 6·25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개 참전국 중 하나다. 하이메 까발 알베르또 산클레멘떼 주한 콜롬비아 대사는 7월 17일 KTV에서 방송된 〈정전 60주년, 참전국 대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기대했다.

지미연 기자

**Q 많은 참전국에서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돼가는 반면 콜롬비아에선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회가 결성돼 활동 중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콜롬비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한국을 돕기 위해 달려온 많은 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한국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콜롬비아가 한국전 참전국이며, 참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기관들은 6·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콜롬비아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에 천문우주 기술을 이전할 계획인데요.**

"사람의 피는 돈이나 다른 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지만, 한국과 콜롬비아 간에 긴밀한 상호협력의 정신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콜롬비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콜롬비아 관계는 최근 문화라는 공감대를 통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에서의 한류 열풍이 어떤지, 또 한류가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요.**

"한국은 제작과 음악연주, 공연에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K팝을 비롯한 한류가 많은 국가로 확대됐습니다. 콜롬비아 또한 많은 K팝 그룹이 활동하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TV 채널 중 하나인 '카라콜(달팽이)'에서는 콜롬비아인 그룹들의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승자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또한 콜롬비아의 음악, 문화, 풍습의 진정한 모습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한류가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병행돼야 하나요.**

"제 생각에 한 국가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화를 콜롬비아에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통해 또는 페스티벌, 콘테스트와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콜롬비아 TV 또한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한국에서 콜롬비아를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들에 주력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문화행사뿐 아니라 콜롬비아가 가진 기회와 풍요로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처럼 발전한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복지 수준도 높아져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에서 생물의 종(種)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이며, 정글에서 도시까지 여러 지역이 존재해 다양한 사업과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가수 샤키라,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 등 세계적으로 유망한 콜롬비아인들도 있습니다."

**최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고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FTA가 발효될 경우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의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한국 상품이 콜롬비아에서 소비될 것입니다. 또한 콜롬비아 상품도 관세를 낮춰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콜롬비아는 쇠고기·유제품·열대과일·채소 등을 생산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커피 생산국입니다. 또한 양국의 무역수지가 연간 30~40 퍼센트 정도 증가할 것이며, 투자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최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아시아 국가의 외교전이 치열한데, 한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중남미 상황에 대해 좀 더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유사한 성장 및 발전 경향을 보였어도 오늘날 국가별 상황은 다릅니다. 콜롬비아는 20여 년 전 치안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이를 극복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중남미에서 세번째로 꼽히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현실을 좀 더 파악하고 조사하고 현지 기업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콜롬비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멋진 해변, 아름다운 커피농장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고 카르타헤나, 보고타, 칼리, 바랑키야 등 문화적·지역적 다양성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콜롬비아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한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한국 역시 통일된 한반도를 보길 원합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평화의 소명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G

정리·박경아 기자

폴 멩크펠드 네덜란드 대사

# "고용률 70% 위해선 중소기업 키워야"

한국의 4분의 1 인구, 하지만 6·25전쟁 당시 8번째로 많이 파병한 참전국이 네덜란드다. 7월 19일 KTV가 방송한 〈정전 60주년, 참전국 대사에게 듣는다〉에서는 최초로 남북 겸임대사를 임명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시간제일자리로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한 네덜란드의 폴 멩크펠드 주한 대사에게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들어보았다.

전민규 기자

**Q 네덜란드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을 이웃으로 하고 있고, 이는 두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수출강국이며 해외 사업, 투자,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선거 제도를 갖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얼마나 많은 네덜란드 용사들이 참전했고, 참전은 네덜란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는 육군 대대와 군함을 파병했습니다. 총 5,300명의 병사가 참전해 121명이 전사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7월 정전협정 60년을 기념해 네덜란드의 대표단이 방한합니다. 한국 구하기에 참여했던 모든 유엔 참전국들이 방한할 테지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정전협전 60년 기념행사에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전협정 기념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남북한 겸임대사를 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요.**

"네덜란드와 한국의 수교는 1961년부터 시작됐고, 1970년대 초 서울에 대사관을 세우고 주한 대사를 임명했죠. 북한과의 수교는 2001년 시작했습니다. 2001년 햇볕정책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남북 겸임대사를 두고 한반도 통일 노력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재 대사가 북한 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양에 요청했지요. 전례가 없다 보니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했고, 이제 약 20개국이 네덜란드처럼 남북한 겸임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남북한과 각각 어떤 면에서 협력하고 있나요.**

"남한과는 외교,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분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 100억 달러에 달하고, 양국 기업들 역시 상대국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는 오직 공식 외교관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 즉 제가 해마다 북한에 두 번쯤 방문하고 주 스위스 북한 대사가 네덜란드를 연 2회 방문합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기업의 95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인 '창업강국'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덜란드에 다국적 기업이 많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국적 석유·가스 회사인 쉘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고, 이 밖에도 필립스(전자), 하이네켄(맥주), 악조노벨(화학), 보팍(탱크터미널)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 전체 기업 중 95퍼센트가 중소기업(직원 250명 이하)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의 7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집중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기업도 중요하기에, 대기업을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겁니다."

**한국은 최근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정했는데, 네덜란드는 이미 시간제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일자리 확대전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직접 이룰 순 없고, 그것은 기업의 몫이죠. 그러나 정부 역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제공, 근로자 고용 및 해고 규제 등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100퍼센트 가까이 취업해야 합니다. 높은 여성 취업률(약 70퍼센트)은 네덜란드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규제, 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고 여성 공무원 채용률을 높여 모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바세나르협약은 1982년 네덜란드에서 정부와 사업체, 노조 간에 체결된 매우 중요한 협약입니다. 노조는 완만한 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고, 사업체는 그렇게 해서 아낀 수익을 재투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체의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요가 동일할 때 노동시간이 줄면 같은 양의 공급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임금 상승 대신 고용 안정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선택한 이 협약은 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노조 지도자들의 선견지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금을 덜 받고 일자리를 더 만든다면 반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행운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어떤 분야에서 교류 확대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경제 협력의 확대를 바라지요. 지금도 경제 협력이 활발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교류 분야도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년 약 600~700명의 한국 학생이 네덜란드 유학길에 오르고, 상당수의 네덜란드 학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대학 차원의 교류도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G

정리·박경아 기자

# "전쟁의 아픈 역사는 모두 지나갔다"

## 참전 중국군인 첫 국내 초청 방문… 한국군 참전용사 만나 뜨거운 포옹

7월 9일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3명이 세계 유일의 적군묘지인 경기 파주시 북한군·중국군 묘지를 방문했다. 참전 중국군의 공식적인 초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군 참전용사도 만났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이미 적이 아닌 친구가 돼 있었다.

중앙포토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천뤄비, 량덩가오, 라이쉐셴(오른쪽부터)이 7월 9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북한군·중국군 묘지를 찾아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7월 9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변 북한군·중국군 묘지. 한바탕 비가 퍼부을 듯한 날씨 속에 백발의 할아버지·할머니 3명을 앞세운 행렬이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군묘 362기, 북한군묘 718기가 있는 묘역에 다다른 이들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묵념을 했다. 묵념이 끝나자 3명의 노인은 말없이 앞으로 나서 대리석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사이 이들의 눈자위엔 붉은빛이 번졌다.

한중문화협회 초청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과 가족들이 방한했다. 민간기구가 주최한 것이긴 하지만 참전 중국군을 국내 기관이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문화협회 정남도(74) 부회장은 "과거를 넘어 화해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참전 군인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류옌둥(劉延東)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정전 60주년을 맞아 우리 군이 관리하는 중국군 유해 360구를 송환해 드리려 한다"고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방한한 참전 군인은 여군 통계병이었던 천뤄비(陳若必·81·여), 운전병 라이쉐셴(賴學賢·85), 통신병 량덩가오(梁登高·78) 등 3명이다. 모두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成都) 출신으로 스무 살 전후 어린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천뤄비는 16군 간부실에서 근무하며 사진 촬영을 맡았다. 그는 철원의 상감령(上甘嶺) 전투 현장 등 틈틈이 찍은 50여 장의 기록을 사진첩에 담았다. 한국군이 파로호를 6·25전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으로 기억한다면 상감령은 중국이 '6·25전쟁의 성지(聖地)'로 여기는 곳이다. 상감령은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가끔 방문하는 오성산(1,062미터) 남쪽에 있는 고개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에 모두 정말 기뻐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총을 메고 파주에 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한국이 다들 친구가 됐다."

그는 종전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1953년 초 참전한 천은 그해 7월 정전된 후에도 북한에 남아 2년간 복구 사업을 도왔다. 세월은 60년을 넘어섰지만 천의 사진은 소중한 기록으로 남았다. 경기도는 전쟁 사료로서 가치를 높게 사 천의 사진첩 복제를 요청했다.

천뤄비는 "(중국군이) 이렇게 안장돼 있다니 한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또 "한국이 빨리 통일돼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 "따뜻한 환대 받으며 서울 땅 밟게 될 줄 몰랐다"

오후 인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견학한 후 임진각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한국군 참전용사 6명을 만났다. 60여 년 전에는 서로 총부리를 겨눴지만 이날은 뜨거운 포옹과 화해만 있었다.

량덩가오는 "한국의 노병사를 만난 감격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말 그대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아픈 역사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 중·한 모두 평화를 원한다"며 "남북 관계도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량은 6·25전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다.

"박격포탄이 날아다니고 사방은 회색 연기로 뿌옇게 물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흐릿한 시야가 확보될 때쯤이면 뒹구는 시체들이 보였다. 1년 늦게 입대한 친구가 먼저 사그라져가도 이상하지 않았다. '참혹'이란 단어 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1951년 7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량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1957년까지 북한에 남아 신병을 가르치는 교관을 지냈다. 그는 이후 주택건설국 이빈(宜賓)시 당서기까지 역임한 골수 공산당원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 따위는 없다.

이튿날엔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1952년 운전병으로 참전한 라이쉐셴은 전사자명비 앞에 서서 한참을 떠날 줄 몰랐다. 최고령인 라이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총을 겨누던 사이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남북은 지금도 하나였을 것"이라며 "조속히 평화통일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삼계탕집에서 이뤄진 점심식사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뤄비는 "한·중 수교가 이뤄지던 1992년부터 꼭 한 번 한국에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됐다"며 '감사합니다'라는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인삼주 건배사를 제안했다.

글·전익진·민경원(중앙일보 기자)

---

**세계 유일의 '적군묘지'**

**축구장 두 개 면적… 북한군·중국군 1,080구 안장**

중앙포토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5. 파주에서 연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변의 나지막한 언덕에 돌아갈 곳 없이 떠도는 혼령들이 잠들어 있다. 공식 명칭은 '북한군·중국군 묘지'이지만 통칭 '적군(敵軍)묘지'라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6·25전쟁 중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 1,080구가 안장돼 있다.

직접 찾아본 묘역은 비교적 깔끔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묘지를 재단장한 덕분이다. 푸른 잔디밭에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 있게 묘역이 조성돼 있다. 봉분마다 조그만 직사각형 형태의 대리석으로 된 묘지석이 놓여 있다. 한 중국군 묘지석에는 '중국군 무명인, 300, 2006년 9월 2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이라 쓰여 있다.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전사한 후 2006년 우리 정부에 의해 300번째로 수습된 유해가 안치된 묘소라는 의미다.

중국군 묘지가 있는 2묘역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10여 대 규모의 주차장과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이 또한 예전엔 보지 못하던 모습이다. 인근 농민은 "가끔씩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버스 편으로 단체 방문해 참배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총면적은 6,099평방미터로 축구장 두 개를 합친 정도다. 대부분 묘를 쓸 때 해가 잘 드는 남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이곳의 묘는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죽어서나마 고향 땅을 가까이서 바라보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적군의 유해를 안장해둔 묘지는 세계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묘지 입구에 있는 안내판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1996년 6월 묘역을 조성했다'고 소개돼 있다.

영화 〈고지전〉 배경 화천 425고지를 가다

# 국군 196명 전우애 뭉쳐 전쟁 마지막 승전보 알렸다

60년 전 포화가 가득했던 화천 425고지 주변은 이제 군사분계선이 지나며 녹음이 우거져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되었다.

화천 425고지 전투를 아시나요? 이 고지전은 정전협정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전투입니다. 우리 국군의 6·25전쟁 마지막 승전이기도 하고요.

425고지는 강원도 화천군 북방 철책선 1.2킬로미터 앞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25미터의 아담한 동산으로 현재 칠성전망대 정면에서 바라보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전사(戰史)에 의하면 425고지 전투는 국군 7사단이 화천으로 이동한 후 책임지역 내에서 수행한 마지막 전투입니다. 425고지에서는 1953년 7월 19일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고지는 높이가 425미터에 불과해 주위 고지에 비하면 작은 동산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화천댐에 이르는 요충지였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앞두고 김일성이 화천발전소 확보에 혈안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승만 대통령도 화천발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발전소 절대 사수를 지시하고 7월 19일 2군단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독려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군 7사단은 1953년 7월 중순 이 지역 일대 방어에 나섰습니다. 6월 말 선우고지 전투를 끝내고 2군단 지원작전에 투입된 후였지요.

당시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을 앞두고 중공군은 5개 군 15개 사단을 국군 2군단 전면에 투입하는 등 이른바 7·13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정전 성립 전 군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손에 넣으려는 당연한 시도였지요. 금성 남쪽의 금성천 부근을 장악해 백암산과 적근산을 수중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곳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경우 아군은 화천 북쪽 방어선에서 크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별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금성천 방어선은 작전상 절대적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특히 425고지는 별우지구를 서쪽에서 지켜주는 동시에 국군 8연대 주저항선의 주봉인 602고지의 동쪽 능선을 맡고 있는 요새로 절대 사수해야 할 중요한 고지였습니다.

### 결사특공대 결성, 육탄전 끝에 고지 사수

중공군 135사단은 전략고지인 425고지를 탈취하기 위해 특유의 인해전술을 펼치는 등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항한 국군의 호국영웅이 바로 7사단 8연대 1대대 1중대장이었던 김한준 대위입니다. 김 대위는 60밀리미터 박격포를 이용해 1개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빛나는 전공을 세우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요.

김 대위의 1중대는 7월 19일 새벽 방어 명령을 받고 진지에 투입돼 곧바로 진지 구축작업을 실시, 오전 10시쯤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작업을 마친 지 불과 30여 분 뒤 적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개 대대가 넘는 적이 3개면에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1중대는 아군 포병지원과 중대원들의 필사적 저항으로 끝내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날이 밝자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적의 박격포탄이 다시 아군 진지 위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때 김 대위는 적을 육탄으로 저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본부 요원 6~7명으로 결사특공대를 급편했습니다. 김 대위는 각각 5발씩 수류탄을 나눠주고 가장 밀리고 있는 2소대 진지로 나아가 적의 공격측선을 측방에서 공격했습니다.

격렬한 전투에 그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 때는 중공군이 방어선을 넘지 못하고 425고지를 포기한 뒤였습니다.

196명 중대원들의 굳건한 의지와 단결로 사흘간에 걸친 최후의 격전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전투로 사망한 중공군 전사자는 수백명에 달합니다. 기록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400여 명부터 많게는 무려 950명에 이릅니다. 생포자도 30여 명이나 되고요.

화천 425고지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 〈고지전〉의 한 장면.

안타깝게도 아군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16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승리로 국군은 화천댐을 사수하고 휴전선을 38선으로부터 35킬로미터나 북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한준 대위에게 직접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처럼 전투는 승리했지만 전쟁은 냉정했습니다. 피와 희생으로 지킨 425고지는 정전협정 결과 그만 남북으로 갈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분계선이 고지의 중앙을 가르며 그날의 승리가 반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 고지를 사수했던 국군 병사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지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김 대위는 1956년 대위로 예편해 지난해 4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육군은 예비역 대위로는 처음으로 장례를 육군장으로 엄수해 425고지 전투의 영웅인 김 대위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일주일여 앞둔 현재 화천 425고지에는 당시 치열했던 전투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짙푸른 숲과 분계선만이 남아 그날의 '고지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기록이 되고, 또 기록은 감동이 되어 지난 2011년 영화 〈고지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여름의 한 자락에, 화천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조국을 수호한 고지전의 용사들을 추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시기 전에 영화를 보면 더욱 좋고요.

글과 사진 · 이영선(국방일보 기자)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림 · 안종만

할아버지~ 또 찾아뵐게요.
보훈병원

할아버지 친구분께 들렀다 가자~
아하~! 6·25전쟁 전우분요!

6·25전쟁 나 그거 좀 아는데...
~오호~!

북한이 침략했으니깐 줄여서 북침이잖아요!
오호~! 제법인데...
헉!

대한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니까 남침이라고 하는 게 맞단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6·25전쟁은 언제 일어난 거죠?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이런~ 역사교육에 너무 무심했나...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은 시작됐어.

6·25전쟁은 60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낳은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해방 이후 남북은 분단되어 서로 자신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며 격렬히 대립했지.
38도선
우리가 유일 합법 정부다!
우리라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침략했지.
쾅!
우리 군사력이 월등하다고!

구소련의 6 · 25전쟁 관련 비밀문서에는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극비문서

하지만 모든 자유국가의 의지와 유엔의 적극적 개입으로 3년 이상 계속된 전쟁은 정전협정을 맺게 되지.
모든 자유국가의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요?

종전협정과는 다르게 정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지. 북한의 도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6·25전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확고한 안보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를 지켜준 6·25전쟁 참전국에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의 자유와 평화, 풍요를 공기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돼!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가 없는 법이거든.

윌리엄 웨버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

# "한국인을 위해 싸운 것 무한한 영광"

"20대 젊은 나이에 소중한 팔다리를 잃은 것이 유감스럽지 않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정규군으로 복무한 것은 내게 무한한 영광이다."

6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문제 관련 세미나에 의족에 의지한 몸을 이끌고 참석한 윌리엄 웨버(87·예비역 대령·사진)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과 나눈 대화다. 그는 마치 젊은 현역처럼 우렁차게 답했다.

웨버 회장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한 명이다.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옆에 서 있는 19명의 미군 병사 조각상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를 만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일본군과 싸울 때만 해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똑같은 나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1950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인은 일본인과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한국인들을 위해 싸운 것은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자 영광이었다."

웨버 회장은 1950년 8월 육군 187 공수 낙하산부대 소속 대위로 인천상륙작전 때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서울을 되찾은 뒤 평양 등 북한 내 요충지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해 승전보를 울렸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중부전선까지 밀린 1951년 1월, 격전지 강원도 원주에서 북한군의 수류탄에 오른쪽 팔꿈치 아래와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잃고 말았다. 이 부상으로 그는 전선과 이별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그의 외모 때문만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소회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지난 60년간 한국에 또 다른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한편으로는 참전용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정전 75주년 기념식이 열릴 텐데 그때는 극소수의 참전용사만 살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참전용사들끼리 하곤 한다. 한국전쟁이 '알려지지 않은 전쟁'에서 '잊혀진 전쟁'이 돼가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모두 사라지면 미국인의 의식에서 한국전쟁이 완전히 실종될 것만 같아 걱정이다."

한국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온 노병(老兵)은 자신의 사후에 '한국전쟁의 역사'가 겪게 될 운명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그는 미국에서 '한국전 알리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한국전 기념비 옆에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모두 새긴 '한국전 추모벽' 건립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중이다.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들에게 충분히 보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웨버 회장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며 "진심을 다해 끊임없이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시 한국전이 일어난다면 참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당연히 참전할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웨버 회장은 올해 세번째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원주를 꼭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김상연(서울신문 워싱턴 특파원)

# 유엔 참전국에 첫 정부차원 감사행사

## 7월 27일 전쟁기념관에 유엔 등 27개국 정부대표·참전용사 초청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을 맞이해 각종 기념 행사가 7월 2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전 60주년을 향후 60년간 도약할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공식 행사를 비롯해 참전국 교향악단 평화콘서트, 주요 참전국 현지위로·감사행사, 참전국 대표 유엔묘지 참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공식 행사는 7월 27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 행사 슬로건은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이다. 참전국 정부 대표와 외교사절, 국내·외 참전용사를 비롯해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빈 및 초청국 대표가 함께 입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전국을 호명하고 전사자에 대해 묵념하며 참전국 대표의 인사말을 듣는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는 국립국악원 소속 정악단과 무용단, 창작악단 단원 150여 명이 행사를 기념하는 공연을 펼친다. 공식 행사 하루 전인 26일 DMZ 인근 도라산역에서는 전야제 성격으로 유엔 참전국 교향악단 평화음악회가 열린다. 참전 21개국 연주자와 국내 연주자로 교향악단을 구성해 유엔군 참전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다.

국내뿐 아니라 6·25 참전국 현지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또 참전용사·미 정부 관계자·외교사절 등 3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 위로연도 진행된다.

캐나다·프랑스·호주 등 참전국 21개국 중 19개국 현지에서도 지난 5월부터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세계 36개 도시에서 참전용사 위문, 전시회, 자선음악회 등 66개 행사가 1만 1,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7월 28일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묘지 참배가 이어진다.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다.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에 있는 상징구역에서 열리는 참배에는 유엔참전국 정부대표단, 재방한 참전용사, 부산시 주요인사 등 4백여 명이 참석한다.

지자체 및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다양하다. 국가보훈처와 한국전쟁기념재단, 엄홍길휴먼재단이 주최하는 DMZ 평화대장정이 열린다. 7월 27일부터 15박16일 동안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강원도 인제, 양구군, 평화의 댐, 철원 등을 거쳐 파주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G

글·남형도 기자

**참전은 1950년부터인데 올해가 '유엔군 참전 60주년'인 이유는?**

유엔참전국은 저마다 참전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참전국은 종전의 개념인 정전협정일(1953년 7월 27일)을 참전기념일로 기린다. 이에 올해 7월 2일, 우리 국회는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래서 올해가 유엔군 참전 60주년이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 "호국영웅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기까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폐허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산천에 눈물을 뿌렸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과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 되었다.

당시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은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다. 이때 희생된 참전용사는 14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가족들은 전몰군경 유족이 되어 평생을 그리움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다.

한편 이름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 21개국 193만명의 참전용사들이다.

그들은 전쟁 발발 직후 부산항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치러졌던 수많은 전투에서 우리 국군과 함께 혼신을 다해 싸웠다. 그들 중 다시 자신의 가족과 고향땅을 볼 수 없었던 유엔 참전용사만 해도 5만명이나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오롯이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 그리고 이름도 생소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유엔 참전용사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 21개국 193만명 참전용사에 경의와 감사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 신화를 쓰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우리나라는 유엔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2012~2013년), 인권이사국(2013~2015년)이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우리가 60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정전협정 이후 6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혈맹국의 든든한 지원과 우호관계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올해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일을 계기로 유엔을 포함한 27개국 정부대표와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6·25전쟁 유엔 참전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감사행사를 거행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지켜온 60년, 함께 나아갈 6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의 참전 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해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 다채로운 보은의 행사를 갖고, 유엔 참전국 현지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분단극복의 길을 모색한다. 동시에 지난 100년간의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힘쓰고 국민통합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며,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60년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60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코자 한다.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보상하고 예우해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보훈의 목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공훈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6·25전쟁을 바르게 알고, 참전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도록 기억과 보은의 유산을 물려주며, 자유와 평화의 땅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호국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이자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그날에 온 국민과 더불어 호국영웅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

# 볼 수는 있지만 DMZ 갈 수는 없는 땅

## 정전 60주년 DMZ 사진공모전… 아름다운 생태계 담은 91점 선보여

인적이 드문 땅에 오직 새들만이 자유롭게 날고 있다. 깨진 녹슨 철모 안엔 한 송이 백합이 피어 있고 말똥게들이 줄을 지어 행진한다. '지뢰'라고 쓰인 빨간 철판이 걸려 있는 철조망 위엔 작은 새가 위태롭게 앉아 있다. '긴장의 땅' 비무장지대(DMZ)의 풍경이다.

환경부가 정전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DMZ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 공모전'에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담은 사진들이 선보였다.

이번 사진전에서 구삼범씨의 '저어새'가 대상을, 이건태 씨의 '관심'과 이혜영 씨의 '족제비'가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18점 출품작 가운데 91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사진 속에는 60년 전 전장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꽃과 새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인 이 땅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의 날갯짓은 비장한 황홀함마저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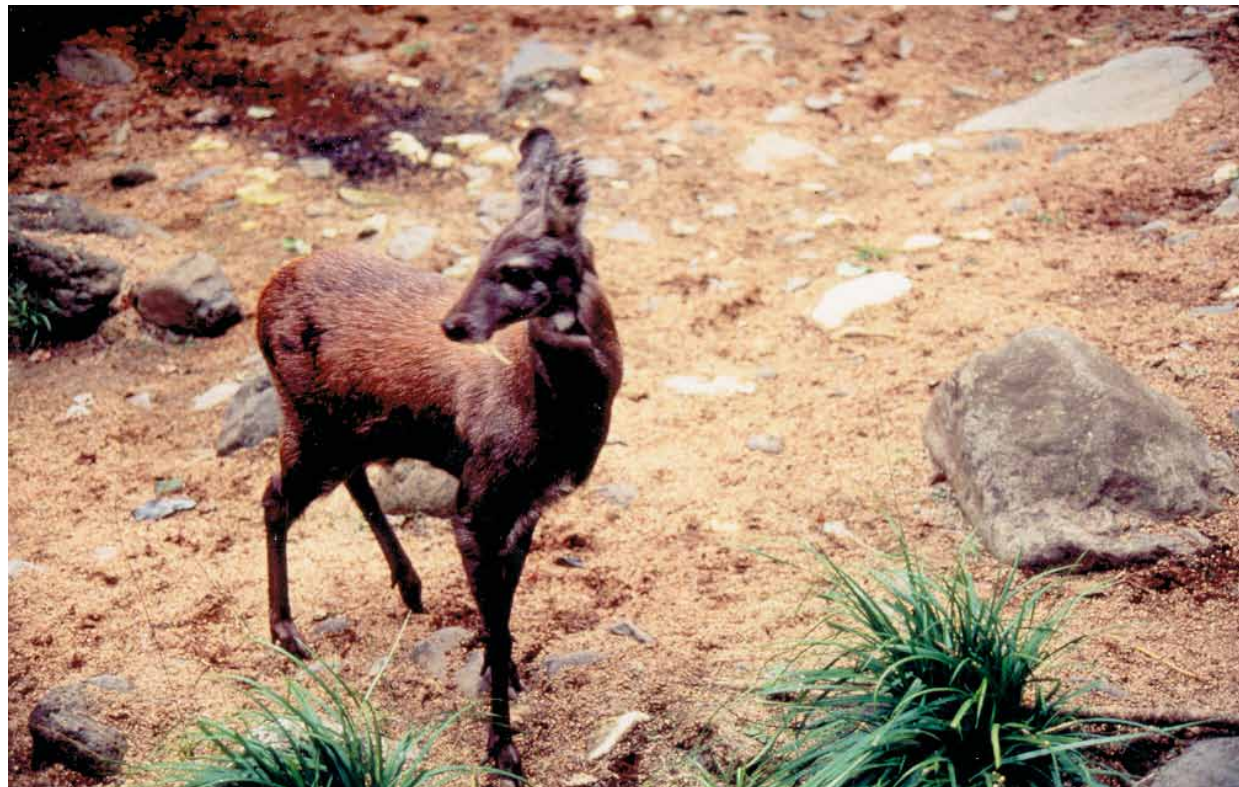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땅, DMZ를 지키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생태계를 담은 수상작들은 환경부가 DMZ 60주년 기념으로 7월 19일 일산 킨텍스 행사장에서 개최한 '생태환경대회' 행사장에 전시됐다. G

글·박미숙 기자

1 구삼범 '저어새' 대상
2 김광득 '흔적' 특선
3 문공선 '긴장의 땅' 특선
4 김희중 '말똥게의 행진' 입선
5 신동현 'DMZ의 봄'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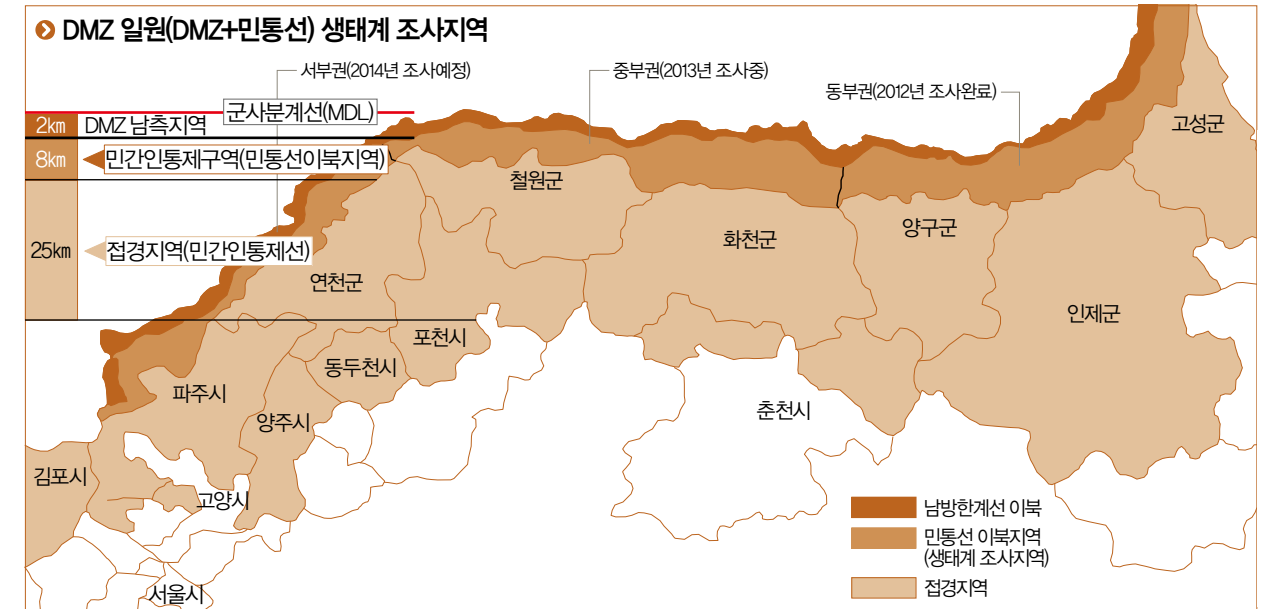
# 사향노루 20년 만에 서식 확인했다

## 멸종위기 30종 포함 모두 2,153종 야생 동식물 보전

사람의 발길이 멈춘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대가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30종을 포함해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환경부의 민통선 자연생태계 조사에서 발견된 사향노루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사향노루는 과거 한반도 전역에 고루 분포해 있었다. 하지만 값비싼 한약재인 사향을 얻기 위한 사냥꾼들의 밀렵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1987년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사향노루는 18년 만인 2005년 강원도 양구에서 다시 발견됐다. 현재는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에만 극소수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DMZ 일원(DMZ와 민통선)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민통선 이북지역 동부권의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시되는 이 조사는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민통선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한 계획에 바탕이 된다.

조사 결과 민통선 일대에는 총 2,15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중 식물은 798종이다. 동물은 포유류 19종, 조류 121종, 양서·파충류 19종 등을 포함해 1,355종이다. 이 중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동식물은 모두 30종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27종으로 1급 5종, 2급 22종이 파악됐다. 1급은 사향노루·산양·수달·흰꼬리수리·검독수리 등이며 2급은 삵·담비·하늘다람쥐·참매·수리부엉이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2급 3종(분홍장구채·산작약·날개하늘나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지역에만 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높은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도 4급 이상 32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4급은 도깨비부채·홀아비바람꽃·연령초·왜솜다리 등 22종이다.

그 밖에 동물 고유종 41종도 발견됐다. 참종개·쉬리·꺽지·새코미꾸리·퉁가리 등 어류가 18종, 여치 등 곤충이 13종, 이끼도롱뇽 1종이 포함돼 있다.

### 하천생태계는 양구 수입천·고성 남강 잘 유지

조사지역 중에서는 강원도 양구 백석산, 인제 대암산과 대우산, 고성 향로봉 일대의 산림 보전 상태가 좋았다. 이 지역 일대에는 사향노루·산양 등 멸종위기 포유류 7종과 검독수리·참매·수리부엉이 등 산림성 조류를 포함한 멸종위기 조류 11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백석산은 DMZ, 화천 백암산과 함께 사향노루의 서식이 확인된 전국 유일한 곳이다. 또한 설악산, 울진·봉화·삼척 지역과 함께 멸종동물 1급인 산양의 대표적인 서식지기도 하다.

특히 고성 향로봉에선 국내 자생종이자 고유종인 '이끼도롱뇽'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로써 기존에는 충남 계룡산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곤 했던 이끼도롱뇽의 최고 북방 한계선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인제 대암산에서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벌매가 번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왕새매·촉새·버들솔새의 번식 가능성도 예측됐다.

DMZ 일원의 하천 생태계 중에는 양구 수입천과 고성 남강이 잘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인 교란이 적고 주변 산림 식생과 잘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조사지역 하천은 산간계곡 고유의 어류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칠성장어·가는돌고기·돌상어·한독중개·가시고기·열목어·버들가지 등 멸종위기 어류 7종과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등이 살고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49종의 담수어류 중 18종은 고유종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이정준 사무관은 "이번 조사로 민통선 이북지역이 생태계의 보고이자 멸종위기종의 천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생태축 복원이나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DMZ 일원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올해 민통선 이북지역 중부권 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서부권 생태계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 민통선 이북지역 생태계 조사와 함께 DMZ 내부의 생태계 조사도 추진한다. G

글·남형도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 "DMZ 생태계 보전은 이 시대의 책임"

올해는 정전 60주년이다. 정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 역시 같은 나이가 됐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60년을 보낸 사이 DMZ 일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이 됐다. 노랑붓꽃·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106종을 포함해 총 5,097종의 동식물이 서식한다. DMZ 일원의 생물학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DMZ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DMZ를 꼭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Q 비무장지대(DMZ)의 생태학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DMZ라 하면 전쟁의 비극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최근 DMZ 일원은 자연이 가장 잘 보전돼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다는 상징성도 크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DMZ 일원의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들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DMZ 일원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DMZ 일원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을 얼마나 잘 보전하고 가꿔가느냐는 이 시대의 막중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

**7월 19일 'DMZ 60주년 생태환경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DMZ 일원은 한반도의 3대 생태축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DMZ가 생겨난 지 60년이 되는 해다. 국민들에게 DMZ 일원의 생태 환경을 알리고, 그 가치를 함께 인식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서 생태환경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에서는 DMZ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메인 행사로 열렸다. 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DMZ 아이디어 경연대회와 마스코트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거나 통일이 되면 DMZ 일원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고,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인제에 있는 대암산 용늪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협약의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군부대 시설물에서 토사물이 쓸려 내려와 용늪에서 육상식물이 자랄 정도로 육지화 문제가 심각했다. 2015년까지 군부대와 부속 시설물을 철거해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2008년부터 DMZ 일원의 생태를 조사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조사 결과 DMZ 일원에는 멸종위기종 106종을 포함해 총 5,097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전체의 43퍼센트, 전체 생물종 수의 13.4퍼센트가 DMZ 일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DMZ를 꼭 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멸종위기종이 사라지는 것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다."

**생물이 경제적인 가치도 크다는 뜻인가?**

"생물은 엄청난 자산이다. 2009년 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플루의 치료제 타미플루는 '스타아니스(팔각)'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개발됐다. 당시 타미플루의 매출은 한 해 약 2조원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이 해외 생물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로열티는 한 해 1조5천억원이다. 이처럼 생물자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전하는 것만큼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정제를 시행하면서 시범지역 5곳을 선정했다. 곡성 생태습지 나들길, 울진 왕피천계곡, 남해 생태관광촌, 제주 동백동산습지, 양구 DMZ 원시생태투어다. 이 중 양구지역이 바로 DMZ 일원에 있는 곳이다. 금강산의 경치가 느껴지는 두타연을 볼 수 있고, 청정자연이 살아있는 대암산이 있는 곳이다. 또 10년 장생길, 펀치볼 둘레길, DMZ 야생생태관 등 안보와 생태에 관한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회가 된다면 다들 꼭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DMZ 일원의 생태적 특성을 살린 생태평화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DMZ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말 못하는 동식물,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해야 할 자산이다. 해외에 나가서 물어보면 의외로 DMZ를 한국의 상징으로 떠올리는 외국인이 많다.

생태평화공원은 철원지역 내 십자탑 코스와 용양보 코스 등 2개 탐방로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비무장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십자탑 코스는 올해 10월에 조성이 끝날 예정이고, 용양보 코스는 군부대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관광지로 활용하면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좋은 지적이다. 실제로 DMZ 일원은 사람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생태계가 되살아난 곳이다. 당연히 DMZ 일원의 자연은 더욱 잘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맑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우 적절한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면 남북한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한 협의와 국제 사회의 협력,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세계평화공원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DMZ에 관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쁜 일정 속에도 울창한 숲이나 시원스럽게 흐르는 강과 계곡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많다. 이처럼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환경복지 선진국이다. 환경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DMZ 일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또 DMZ 일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하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 작은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DMZ를 지키는 데 동참하면 DMZ는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의 보고이자 세계평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G

글·장원석 기자

# "반짝 일하고 반짝반짝 행복한 삶"

## 주부들 포장작업 등에 배치… 근무시간만 짧을 뿐 복지혜택은 똑같이 적용

엔드밀 분야 세계 1위 업체로 꼽히는 절삭공구 전문업체 와이지-원.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뛰어난 기술과 품질로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와이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의 핵심을 이루는, 반짝 일하고 반짝반짝 반듯한 생활을 하는 기업 현장을 찾았다.

7월 9일 오전 인천 부평구 와이지-원 본사 공장에서 오전반 시간제근로자들이 포장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와이지-원의 시간제일자리는 일하는 시간만 짧을 뿐 각종 복리후생은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하다.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물불을 두려워 않고 뛰어드는 용기와 어떤 시련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배우 이병헌의 나직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한 스마트폰 광고의 '메탈 찬사' 멘트다. 하지만 뛰는 메탈(금속) 위에 나는 절삭공구가 있다. 금속을 자르고 뚫고 깎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절삭공구는 휴대폰 금형을 비롯한 각종 금형이나 자동차, 항공기 동체 등을 깎는 데 사용하는 금속 작업도구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2 고용창출우수기업으로 꼽힌 와이지-원(YG-1)은 절삭공구 전문업체다. 중소기업이면서 국내 7개 공장에서 모두 1,250명을 고용했다. 와이지-원은 절삭공구 가운데 특히 엔드밀(End Mill·옆면 밑면 모두 절삭 기능)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와이지-원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우수기업으로 꼽힌다. 2010년부터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왜 이 회사를 꼽는가 알아보기 위해 7월 16일 오전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청천동)에 위치한 와이지-원 본사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안 엔드밀 포장작업장에서는 9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크고 작은 엔드밀 제품들을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들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퇴근한다.

결혼 전 지도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는 김미옥(41)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곳에서 일한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자매를 키우고 있다.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것이 가장 좋고, 출퇴근이 정확하니 좋아요. 오후에 아이들 돌볼 수 있고요."

같은 오전반인 이향란(35)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섯 살 딸아이가 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집에서 가깝고, 아이 돌보며 일하기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오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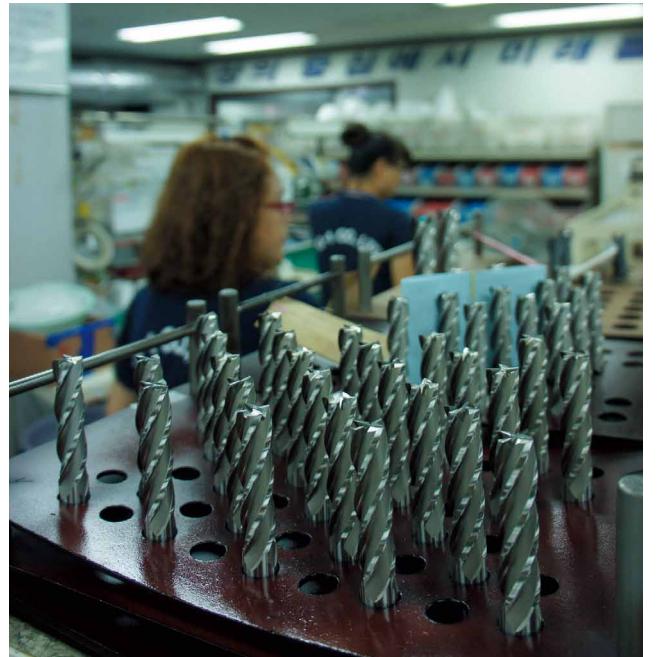
포장 파트에 근무하는 오전반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는 모두 15명,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오후반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는 5명이다. 주말반(13명)을 포함하면 포장 파트의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는 모두 33명(여자 30명, 남자 3명). 생산 파트의 시간제일자리 근로자 3명(여자 1명, 남자 2명)을 더하면 부평구 본사에 근무하는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는 모두 36명이다. 이는 본사 생산직 근무자 362명의 10퍼센트에 해당한다.

와이지-원의 서광수 포장관리팀장은 "아무래도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들은 풀타임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 짧아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풀타임 근로자보다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회사에서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을 시간에 맞게 배려하고, 근무기간이 늘면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갖춰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를 고용해왔다. 와이지-원이 시간제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것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위한 조건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시간제일자리는 일하는 시간만 짧을 뿐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이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하다.

### 주말반 포함 생산직 근무자 10퍼센트 시간제로 고용

와이지-원의 이충환(45) 인사팀장은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한 것은 365일 돌아가야 하는 우리 회사의 특성과 잘 맞았기 때문"이라며 "기존 사원들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줄여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일자리를 만들 때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실 우리 회사 풀타임 근로자들은 8시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제일자리에 주부들 지원이 많을 것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포장을 앞두고 있는 와이지-원의 엔드밀 완제품들. 절삭공구 전문기업인 와이지-원은 엔드밀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러나 보니 오후에 자유로운 오전반에는 지원이 몰리고, 오후반은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 팀장은 "시간제일자리 운영을 해보니 일하러 오는 사람도, 일부 기업들도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시간제일자리를 대체할 긍정적 용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시간제일자리 근로자 신규채용 시 월 임금의 50퍼센트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 팀장은 "기업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시간제일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데, 1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끊긴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2팀의 김보령 주임은 "최근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발표 이후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정부 지원이 1년이 지나 끊기는 부분에 대해 기업들의 개선 요청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시간제일자리 지원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2팀 ☎ (02) 6021-1204

# 14년 묵은 민원 서로 '양보'로 풀었다

## 방화대로 군사시설 이전 구청·국방부 머리 맞대 마곡지구 교통대책 해결

일러스트·김희용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새로운 도로가 '방화대로'다. 1971년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계획했다. 1999년 개설된 방화대로는 폭 40미터의 왕복 8차선 도로다. 서울 서남부권 일대와 인근 3만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될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 5,800미터 중 250미터 구간이 군사시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이 결정돼야 방화대로가 개통될 수 있는데, 관련 기관 간의 협의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개통이 미뤄져왔다.

서울시는 방화대로가 개설된 1999년부터 국방부와 수십 차례 부대 이전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 도중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방식이 변경돼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방화대로 개통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방화대로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던 인근 공항동 주민 970명은 10년 이상 끌어온 도로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까지 제기한 이유는 방화대로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있어서다. 2016년 입주를 마치는 마곡지구 주민들이 방화대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개통이 지연되면 일대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방화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 이충호 위원장은 "방화동에서 공항빗물펌프장까지 오는 길이 18년 전에 이미 개설됐는데도, 부대이전 문제로 전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2003년 토지보상과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군부대 주변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개별 주민들의 민원은 이미 15년 전부터 있어왔다.

집단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방화대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5월 27일 이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가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 관계자들과 민원 신청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방화대로 중간 부분 250미터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이다. 서울시와 강서구, SH공사 등은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각각의 중재안을 모은 뒤 합의안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5월 27일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 따라 공항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왼쪽은 방화대로 약도.

### 관계기관 실무협의 6개월 만에 결실

강서구가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는 강서구가 추천한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작전성 검토를 한 뒤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강서구가 국방부로부터 이전부지 토지 등의 보상과 민원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함께 현 군부대 주둔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또 강서구는 SH공사와 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정산 관련 협약 등도 체결키로 했다.

이로써 15년 동안 끌어오던 방화대로 개통 문제가 권익위 중재에 따라 깔끔하게 해결됐다. 강서구는 교통난 문제를 해소했고, 국방부는 대로 내에 군부대를 주둔시키면서 보안과 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현장조정회의에서는 도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원인 주부 대표 박영옥씨는 "2003년에 도로 개설을 준비하면서 군부대 주변의 건물 철거가 이뤄졌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우범지역이 돼버렸다. 노약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백승주 차관은 "군부대 주변 치안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 해당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각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상호 합의된 내용이 성실히 지켜지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해 합의에 무게감을 더했다.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지 1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과 실무협의한 지 6개월 만의 일이기도 하다.

글·박상주 기자

# "국제행사 홍보는 내 손에" SNS 국민리포터가 떴다

## 파워유저 40여명 선발… 8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활약 기대

SNS 국민리포터들이 충주 탄금호에서 조정을 직접 배워보고 있다.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SNS 국민리포터 40명 중 20명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1차 탐방 행사에 이어 2차 탐방을 위해 충주를 방문했다. 조정체험학교가 있는 충주 탄금호에서 오는 8월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조정의 매력에 국민리포터들도 푹 빠져 2박3일간의 체험 일정 중 조정 체험을 최고로 꼽았을 정도다. 이번 행사 현장 체험은 국가 행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6월 3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인천과 수원, 충주, 괴산, 이천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다.

리포터들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지만 대부분 조정을 처음 접하는 터라 노를 저어 20미터를 가기도 벅찼다. 쉽지 않은 스포츠였지만 체험을 하는 리포터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날 줄 몰랐고 끝난 뒤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생 김서영양은 "한 배에 탄 사람들끼리 협동해서 한 몸처럼 노를 저으며 나아간다는 게 즐거우면서도 신기했다"며 "조정이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재미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대회를 한 달여 앞둔 현재 충주 탄금호에선 무료로 조정 체험을 할 수 있다. SNS 리포터들은 앞서 '인천실내 & 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도 방문했다. 7월 6일 막을 내린 이 대회에서는 선수, 관객 모두 하나가 돼 숨죽이며 당구 경기에 집중했고, 풋살대회에서의 슛 한 번에 관객석은 떠나갈 듯 열광했다. 6월 29일 개막해 8일간의 열전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볼링, 체스, 바둑,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 카바디 등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경기 종목은 당구, 볼링, 체스, 바둑, e-스포츠, 댄스 스포츠, 풋살, 실내 카바디, 킥복싱, 크라쉬, 25미터 쇼트코스수영 등 9개 종목 12개 세부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전 세계 45개국 4,4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평소 e-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는 서명종(28) 리포터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인 것 같다"며 대회를 관람한 소감을 밝혔다.

### 리포터들, 2박3일간 지역문화 등 다양한 체험

이번 대회는 역대 '실내 & 무도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SNS 리포터들은 각각 당구·풋살·e-스포츠 등 각자의 흥미를 고려해 각종 대회를 관람했다. SNS 리포터 신동환(26)군은 "비록 종목마다 대회장이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했지만 그런 불편을 한방에 날려버릴 만한 시원한 경기였다"며 즐거워했다. '2013 인천실내 & 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2위(금 21, 은 27, 동 19개)를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2012 한국관광의 별'로 지정돼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다. 왕실을 상징하는 용을 형상화한 화성과 임금이 타지로 이동할 때 거처했던 행궁은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자신을 여행광이라고 소개한 남궁선 리포터는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원화성에 자주 오는 편"이라며,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다"고 말했다.

리포터들은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곳곳을 누비며 그곳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들었다. 수원화성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기차를 타고 성곽을 한 바퀴 돌고, 화성 옆에 마련된 국궁체험장에서 직접 우리나라 전통 국궁도 쐈다. 미처 알지 못했던 화성의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SNS 국민리포터들은 이 밖에도 충주 술 박물관, 이천 도자기 박물관, 괴산 산막이 트레킹 길 등 대한민국 곳곳의 숨겨진 명소를 탐방하며 SNS를 통해 그 매력을 알렸다.

충주 술 박물관에선 술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직접 칵테일을 만들었고 이천 도자기 박물관에선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괴산 산막이 트레킹 길에서는 유람선과 트레킹 길, 두 갈래 길을 통해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즐겼다. 가이드에게 산막이 길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평소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리포터 곽금미씨는 "문화예술은 접하고 체험하는 것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탐방에 참가하게 됐다"며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활동의 저변이 좀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는 곧 삶이다.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건 문화가 발전했다는 의미다. 문화융성은 대한민국 곳곳의 멋진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서도 비롯된다. 인천에서 충주까지, 국민 리포터들과 함께한 2박3일간의 일정은 각자에게 값진 기억으로 남았다. G

글과 사진·공감코리아 제공 korea.kr
조정체험학교 www.cjrowingschool.kr

최근 들여놓은 계분(닭의 배설물) 퇴비. 시골에 살려면 때론 유쾌하지 않은 냄새도 감수해야 한다.

# 복합형 귀농… “세종보다 좋은 곳 없다”

## 인근 도시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귀농·귀촌 일번지’ 조건 갖춰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를 떠나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1960년대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비도시 지역의 거주인구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최근 귀농·귀촌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 언론인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 부부가 나를 찾았다. 이들은 먼저 공주에 있는 나의 시골집을 돌아보고 뒤이어 간단하게 세종시 투어를 했다.

내가 세종시로 ‘숙소’를 옮긴 건 지난해 말이다. 그전에는 공주의 시골집에서 잠을 자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난 반년 남짓 동안 잠은 세종시에서 자고, 일터인 공주의 시골집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세종과 공주 사이를 오간 약 6개월 사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공주 시골집과 세종을 돌아봤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오랜만에 모국을 찾은 친구,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는 전 직장동료, 머잖아 세종시로 이사올 공무원도 나의 안내로 세종시를 구경하고 돌아갔다.

세종의 이웃 도시인 대전에도 친구 여럿이 있는데 이들 또한 수차례나 내 시골집에 들러, 놀다 갔다. 또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고모 부부는 한번은 차를 몰고 나의 시골집을 찾은 뒤, 나의 안내 없이 세종시를 돌아보고 내려가기도 했다.

지인들의 시골집 방문과 세종 구경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사적이긴 하지만 좀 이례적이다.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살 때 나의 아파트 혹은 내가 사는 동네를 구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지인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시골집 방문과 세종 구경은 한동안 계속될 듯하다. 서울이나 다른 지방 도시에 사는, 직업도 다양한 서너 부류의 지인들이 얼마 전 나의 시골집과 세종시를 돌아보겠다고 단단히 언약을 한 까닭이다.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찾은 이들은 직업도 살아온 이력도 사뭇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나를 찾은 이유는 대체로 비슷했다. 첫째, 이들은 나의 시골생활을 궁금해했다. 둘째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 전원생활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

나의 시골생활에 대한 반응은 ‘감탄’이 일반적이었다. 내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노동을 일상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칭찬과 함께 격려를 해주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도시 조성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에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들은 내가 보고 있는 세종시의 잠재력과 가능성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세종시가 유력한 귀촌이나 귀농 혹은 전원생활의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인들은 그 점까지는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6개월 남짓 세종의 첫마을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공주의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세종은 도시와 시골생활의 장점을 두루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최근 1~2년 사이 급등한 세종과 그 일대의 토지 가격이 귀농이나 전원생활에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이나 그 주변 지역은 전입에 따르는 초기 비용이 꽤 든다는 점을 제외하곤,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잠재력이 상당한 곳이다.

나의 시골생활은 처음 목표였던 완전한 자급자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쐬며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미 큰 보상을 받은 셈이다. 또 머잖아 경제적으로도 자급자족의 가능성이 큰 편이어서 나름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 **세종시에 부는 귀농·귀촌 바람**
> **3월 연구회 출범… ‘반농반도’ 생활의 메카로 발돋움**
>
> “땅값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대놓고 귀농·귀촌을 장려하기는 곤란한 형편인데요.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농한 사실을 파악하고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의 이현상 주무관은 올해 초 세종시의 귀농귀촌연구회(회원 20여 명) 결성을 뒷바라지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는 귀촌에 세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
> 세종시는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팀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마인드를 장려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농사 기법 등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협력, 수만 평방미터 규모의 주말농장 운영을 돕는 것도 이런 활동의 일환이다.
>
> 세종시 전체 면적은 약 465평방킬로미터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는 등 계획도시로서 개발이 집중되는 곳, 이른바 ‘예정 지역’은 73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다. 향후 최소 50만명 이상의 수용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 인구의 대부분은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이 가까운 장래에 농촌 지역으로 남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귀농·귀촌에 필요한 토지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 인근의 공주·청원 등의 지역까지 포함하면 귀농·귀촌이 가능한 범위는 한층 늘어난다. 영·호남이나 강원도 등 시골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싼 게 장애 요인이기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세종시다.
>
> 이는 바꿔 말해 공무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이나 상공인들도 농사를 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시와 농촌의 삶의 양식이 섞인, ‘반농반도(半農半都)’ 생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력이 세종시만큼 큰 곳도 흔하지 않을 듯하다.

나의 ‘이중생활’은 직업 특성상 도시를 떠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아내의 삶도 잘 뒷받침하고 있다. 아내는 대전을 거점으로 일하고 있지만, 세종·청주·천안·아산 등지에 출장이 아주 잦은 편이다. 세종은 지리적으로 중부권의 요충이어서 웬만한 도시는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닿는다. 대전·청주·천안 등은 국내 대도시 가운데도 성장세가 두드러진 축에 속하는데, 세종은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도시다.

요컨대 세종은 도시와 농촌의 삶이 한데 어울린 ‘복합형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시골 일을 주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도시에 일터를 가진 가정이라면 세종은 유력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G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 물회, 안 비려? 아니, 개운해!

바닷가 음식에 '물회'가 있다. 잘게 썬 회를 양념장에 비벼서 물에 말아 냉국처럼 먹는 별난 요리이다. 통상 회를 다루는 사람들은 포를 뜬 생선살에 물이 닿는 것을 금기시한다. 맛이 없어지고 살도 물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회는 아예 회를 물에 말아 먹으니 상당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나름의 특별한 맛도 있다. 게다가 개운한 것이 해장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생선냉국' 또는 '술국'이라고도 불릴 정도이다.

원래 물회는 어부들이 배 위에서 해 먹던 음식이다. 풍어기에 바다 한가운데서 바쁘게 조업을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럴 때 잡아 올린 생선을 대충 썰어 고추장 풀고 물에 말아 훌훌 마신 것이 유래라고들 한다.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다 보니 식당의 메뉴판에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국의 해안도시에 산재해 있는 물회 전문식당 간판에는 '포항'이라는 도시명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포항이 물회의 메카임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실제로 100군데가 넘는 물회 식당이 있고, 최근에는 '포항물회연합회'라는 조직이 결성될 정도로 포항은 물회를 사랑하는 고장이다. 물론 제주도나 동해안의 가진항과 속초, 남해안의 부산과 거제 등도 물회를 흔히 먹는 지역이다.

물회는 다양하다. 옛날에는 물회를 만들 때 각종 가자미류와 광어, 도미 등 특정 흰살생선을 주로 사용했지만 요즘엔 우럭, 쥐치, 학꽁치, 전어, 가오리는 물론 소라, 성게알,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등 갖가지 해산물도 재료로 쓰인다.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오징어와 한치를 많이 쓰고 제주도에서는 특산물인 자리돔, 부산에서는 흔히 빨간고기라고 부르는 눈볼대로도 해 먹으며, 울릉도는 꽁치, 거제는 멸치 물회가 유명하다.

물회의 맛은 재료의 신선도와 양념장이 좌우한다. 재료로는 생선회나 해산물 외에도 채 친 오이와 배·상추·당근·양파·쪽파·쑥갓·고추 같은 채소와 고추장이나 된장에 식초, 다진 마늘, 깨, 참기름 등을 버무려 만든 양념장이 들어간다. 동해안에서는 고추장을 많이 쓰고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된장을 주로 쓴다지만 그 경계는 모호해졌다. 아무튼 갖은 재료를 양념장으로 비빈 다음 생수를 좀 붓고 얼음을 몇 개 띄워 먹는다.

중앙포토

물회는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회를 건져 먹은 다음 국수나 밥을 말아 먹으면 좋다. 근자에 와서 물회도 진화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육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생수 대신 과일즙이나 매실농축액을 섞은 새콤달콤한 육수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날에는 생선 한 가지만을 넣는 식당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다양한 해산물을 섞어 쓰는 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양새가 화려해진 것은 좋지만 간결하고 소박한 물회 본연의 맛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관광지의 일부 식당들이 해삼, 전복, 성게알 등 과거에는 잘 쓰지 않던 고급 재료를 조금씩 넣고 물회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는 점이다. 좋은 재료를 쓰는 건 좋지만 비싼 가격이 입맛을 잃게 하면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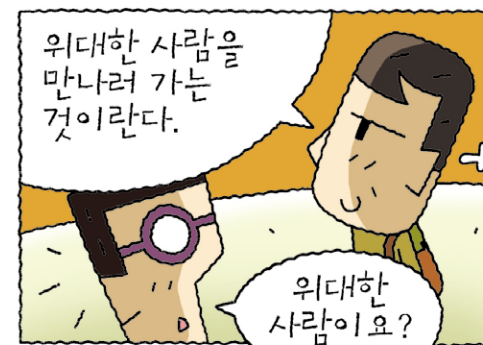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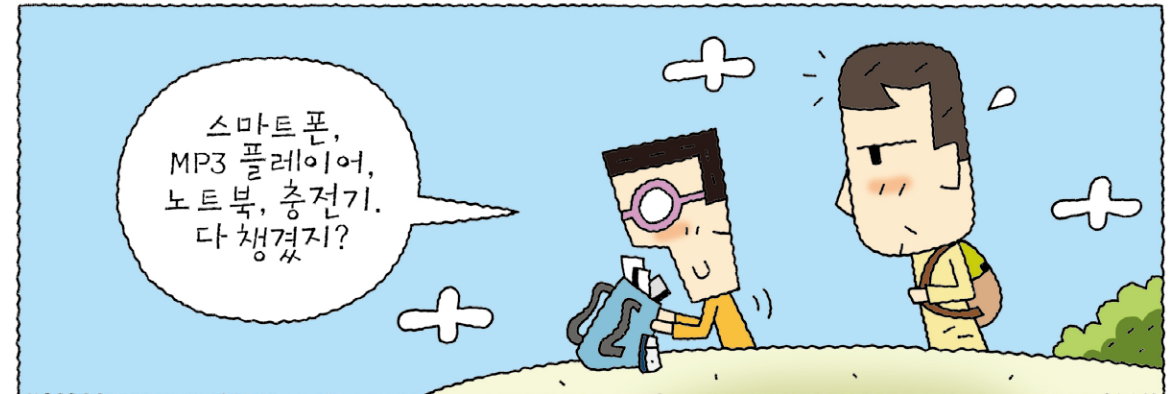
물회 전문식당은 곳곳에 있다. 포항에서는 '새포항물회집'과 '환여횟집'이 이름난 집들이고 속초의 '봉포머구리집', 가진항의 '광범이네활어센터', 부산 중앙동의 '동해물회'와 남항동의 '원조영도포항물회' 제주 모슬포의 '덕승식당', 거제도의 '양지바위횟집' 등이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물회 식당들이다. 서울에서는 충무로의 '영덕회식당'에서 물회 맛을 볼 수 있다. G

글·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 여행이란?

글과 그림 · 최영순

수만 마일을 여행하는 것은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최창수 〈지구별 사진관〉 중

# 인문학은 삶을 보는 '지혜의 렌즈'

## 〈인문학 명강 : 동양고전〉

강신주 외 14명 지음
21세기 북스 · 18,000원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 언어학·역사·철학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이 이에 포함됨." 인문학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최근 우리 사회엔 인문학 열풍이 뜨겁다. 일부 기업들은 면접에서 지원자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테스트하고, 인문학을 배우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스스로와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정신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학문이다. 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신간이 출간됐다.

강신주·고미숙·신정근 등 대한민국의 대표 인문학자들이 들려주는 인문학 강의를 수록한 책이다. 이들은 〈논어〉 〈목민심서〉 〈열하일기〉 등 한번쯤 제목은 들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엔 어려운 동양고전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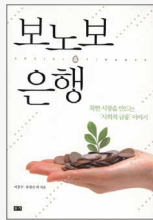
지난해 가을, 플라톤아카데미와 연세대 학술정보원은 '동양고전, 2012년을 말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연세대학교 필독도서 중 대표적인 14종을 선택해 동양고전 연구를 이끄는 국내 석학들에게 각각 맡겨 동양고전의 지혜를 듣기 위한 행사였다. 이 책에는 14주간의 강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이 강의는 매 회 1,700여 좌석이 꽉 채워졌으며 참석자들도 대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해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예기〉엔 '무불경'이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뜻이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는 남자'로 유명한 카피라이터 박웅현이 삶의 목표로 삼은 말이다. 떨어지는 빗줄기 하나도 모두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그는 "우리 주변에 정말 경의를 가지고 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동양고전을 통해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적었다. 즉 인문학은 우리 삶을 보다 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렌즈'인 셈이다.

신정근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는 동양고전을 커피에 비유한다. 〈역경〉은 커피의 원조가 되는 쓴맛이 강한 에스프레소, 〈서경〉은 위스키가 약간 섞인 톡 쏘는 맛의 아이리스 커피, 〈논어〉는 여러 가지가 섞인 맛이 나는 카페 모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주문대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듯, 자신의 기분과 입맛에 맞는 동양고전을 선택해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나아가 신 교수는 동양고전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파악한다. 〈논어〉를 읽다 보면 가속 없는 인생의 무료함과 감속 없는 인생의 위험함, 즉 무료함과 위험함을 줄여주는 가속과 감속의 균형 잡힌 운전을 통해 즐거움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들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글 · 김혜민 기자

### 새로 나온 책

**보노보 은행**

이종수 외 9명 지음
부키 · 14,800원

보노보 은행은 소위 '착한 금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들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은행, 시민 섹터를 지원하는 마을금고인 이탈리아 방카에티카 등이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재단 이사장 등 금융 전문가 10명이 미국과 유럽의 보노보 은행들을 연구해 사례를 모아 만든 책이 나왔다. 이들은 여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은행 업무를 소개하고, 이 외에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혁신을 이루어낸 보노보 은행들을 깊숙하게 들여다봤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에스더 M. 스턴버그 지음
더퀘스트 · 17,000원

공간과 건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건축을 고민하는 '신경건축학'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애리조나주립대 통합의학센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저자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의 사례와 사람이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감각과 치유 능력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수많은 환자들이 프랑스 피레네산맥 기슭의 루르드에서 기적으로 병이 낫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힐링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외부 환경과 신체·감정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 도시, 세계로 시각을 확대하며 근본적인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LIG문화재단은 7월 18일부터 '재즈홀릭: 작가주의 재즈 앙상블' 공연을 선보인다.

# 흥에 겨워 어깨가 절로 들썩들썩

## 8월 10일까지 〈재즈홀릭 : 작가주의 재즈 앙상블〉

재즈의 매력 중 하나는 '즉흥성'이다. 연주자들이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음이 놀랍게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관객들은 흥겨운 리듬에 어깨를 들썩거리게 된다. 무더운 여름날, 재즈의 즉흥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이번 공연에는 '모던 크리에이티브 재즈'를 대표하는 재즈 음악가 일곱 팀이 참여한다. '모던 크리에이티브 재즈'는 클래식 음악, 민속음악,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위적인 음악 장르로 즉흥적이며 실험적인 사운드를 선보인다.

재즈계의 거장 빌리 하트가 무대에 서는데 이는 그의 첫 내한 공연이다. 또한 시몬 나바토브(러시아)·닐스 보그람(독일)·톰 레이니(미국)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박재천·한지연·김창현 등 국내 대표적인 연주자들이 관객들과 만난다.

박재천과 SMFM 집단즉흥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무대는 독특하다. 재즈, 판소리, 무용, 사물놀이, 디제잉 등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한풀이&살풀이'를 주제로 정해진 각본 없이 집단적인 즉흥 연주의 정수를 보여준다. 국내 뮤지션의 무대는 신곡으로 구성돼 곧 발매될 새 앨범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LIG문화재단이 8월 10일까지 '재즈홀릭: 작가주의 재즈 앙상블' 공연을 선보인다.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이 공연은 8월 9일까지 서울 LIG아트홀 합정에서 모두 7회(홈페이지 참조) 열린다. 또한 부산에서도 진행된다(8월 3·10일). LIG 문화재단 관계자는 "찰나의 순간에 매료되는 독특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글 · 김혜민 기자

**기간** 8월 10일까지 **장소** 서울 마포구 합정동 LIG아트홀 · 부산 범일동 LIG아트홀
**문의** ☎ 1544-3922 **홈페이지** ligarthall.com

### 연극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등 장애인을 소재로 한 여러 작품을 선보였던 고정욱 작가의 베스트셀러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가족음악극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 작품은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메시지를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번 연극은 단순하지만 재치가 넘치는 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기간** 7월 19일~8월 16일
**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아트홀
**문의** ☎ 02-765-8880

### 전시

**〈2013 미술과 놀이-'놀이시-작'〉**

한가람미술관은 7월 26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어린이 전시회로 알려진 '미술과 놀이'전을 선보인다. 한국 최초 어린이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 관장인 김이삭 관장이 10명의 미술가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의 타이틀은 '놀이시-작'이다. '놀이시-작'은 관객이 예술을 놀이로 바라보고 즐기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향유할 때 비로소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기간** 7월 26일~8월 25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문의** ☎ 02-580-1300

# 빈틈이 있어 숨 쉬며 산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있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품성도 선한 친구지만 공부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우산이나 필기구를 잃어버리기 일쑤요, 교복은 밥 먹다 흘린 자국 천지라 친구들 사이에서 칠칠치 못하기로 유명했다. 어느 중간고사 때 그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며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어느 아침, 친구 오빠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야, 너는 계집애가 욕실 꼴이 이게 뭐냐?"

하긴 나도 놀란 터였다. 친구가 들어갔다 나온 욕실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샴푸 뚜껑은 아무 데나 굴러다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 수챗구멍에 엉켜 있고, 하다 못해 자기가 쓴 세숫대야 물도 버리지 않은 채였다. 아침마다 그 꼴을 봐야 하는 오빠로서는 짜증이 날 법도 했다. 오빠의 언성이 높아지자 이내 어머니가 들어왔다.

오늘은 기어코 경을 칠 모양이구나. 남의 집에 얹혀 있는 나는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무란 것은 뜻밖에도 친구가 아니라 오빠였다.

"네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공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야. 그만한 흠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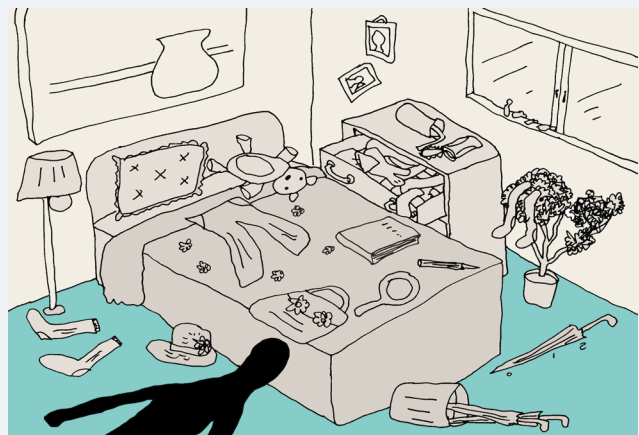
"어머니! 저러다 재, 시집가서 쫓겨올 거라구요!"

오빠가 볼통거리며 한마디 보탰지만 어머니는 사람 좋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 말아라. 시집가기 전에 내가 먼저 다 까발리고 그래도 좋다는 집으로 시집보낼 테이니."

국립대 의대 교수가 된 친구는 지금도 여전하다. 살림은 나 몰라라, 시어머니가 대신 살림을 살아주는데, 출근하고 난 침실이 가관인 모양이었다. 세탁할 속옷까지 방 아무 데나 던져놓고 출근하는 통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입을 모아 흉을 볼 정도라고 한다.

그래도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한다. 친구는 경제관념이 없다. 재테크는 고사하고 돈 쓸 줄도 모른다. 은행 한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 월급을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 쓴다. 몇 푼 안 되는 용돈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친구 옷을 뒤지면 십 수만 원 수금은 거뜬할 정도란다. 그렇게

일러스트 · 강일구

순진한 며느리이니 이런저런 허물도 그냥저냥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친구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많다. 보통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완전무결하기를 바란다. 공부도 잘하고 예절도 바르고 똑부러지고 동시에 사회생활도 잘하기를 말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누구나 약간의 흠을 가지고 있다. 꼼꼼한 사람은 추진력이 없기 십상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꼼꼼하지 않아 실수가 잦기 십상이다. 조지프 캠벨이 <신화의 세계>에서 지적했듯 '당신의 악덕은 곧 당신의 미덕'인 것이다.

미덕과 악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꼼꼼한 사람은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꼼꼼하다. 과감성을 갖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고기의 부레는 텅 빈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이 있어 물고기는 떠 있을 수 있다. 흠이든 틈이든 악덕이든, 사람 역시 그 빈 곳이 있어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친구 어머니는 딸의 칠칠맞지 못함이 미덕의 이면임을, 딸을 숨 쉬게 하는 부레임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배우지 못했으나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었다. G

글 · 정지아(소설가)



## 2013년 하반기 중앙부처 국·과장급
# 개방형 직위 공모 예고

2013년 7월~12월 사이에 공개모집하는 중앙부처 실·국장급(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처명 | 직 위 | 보직가능직종 | 공고시기 | 문의처 |
|---|---|---|---|---|
| 국방부 | 국방홍보원장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7월 | 02) 748-5093 |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7월 | 042) 481-4641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악원 부산국악원장 | 학예연구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 '13. 7월 | 02) 3704-9266 |
|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천과학관장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8월 | 02) 2110-2144 |
| | 강원지방우정청장 | 일반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8월 | |
| 법제처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산업무역) | 일반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7월 | 02) 2100-2521 |
| 보건복지부 | 국립보건연구원장 | 일반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 '13. 7월 | 02) 2023-7058 |
| |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 '13. 7월 | |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장 | 일반직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7월 | 02) 2110-5052 |
| | 홍보담당관 |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 '13. 10월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 보건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 '13. 7월 | 043) 719-1242 |
| | 정보화통계담당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 '13. 7월 | |
| 외교부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7월 | 02) 2100-8279 |
| |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7월 | |
| 통계청 | 동북지방통계청장 |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 '13. 11월 | 042) 481-2005 |

###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 | (고위공무원 기준이며, 괄호는 4급 과장급 기준임)

**학력**

- 석사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과장급: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과장급:2년)인 자
- 박 사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과장급: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과장급: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과장급:4급(상당) 공무원 또는 5급(상당)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 관련분야에서 4년(과장급: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과장급 :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2년) 이상인 자

※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과장급: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과장급: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실무자급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보수수준, 제출서류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시기에 해당부처에서 공고할 예정이므로 부처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